23일 Market Index
코스피 5550.30 (+16.53)
코스닥 751.69 (-12.41)
금리(국고채 3년) 3.803 (-0.037)
환율(원·달러) 1324.70 (+0.10)

metro 경제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1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10월 26일 월요일

하나금융그룹

'불황의 그림자' 채무조정 수요 지속

폐업·연체 자영업자 확대
새출발기금 월 5165명 신청
올해 누적 신청인원 22만명
채무조정 신청액 35조 달해



왕후닝 中 주석과 악수하는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의 항미원조기념관을 방문해 왕후닝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신압록강대교를 통해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방문 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뉴시스

경기 부진과 내수 침체로 경영난에 빠진 자영업자들의 채무조정 수요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빚을 제때 갚지 못하거나 폐업하는 사업자가 늘고 있어서다.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대출 부담에 고금리·고물가로 비용 압박까지 겹치면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적지 않다.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새출발기금 신청 규모가 지난해보다 감소했지만, 매달 5000명 이상의 신청자가 이어지고 있다.

◆ 월 평균 5000명 '새출발기금' 신청

25일 새출발기금을 운영하는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9월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신청자는 월 평균 516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2월의 월 평균 신청자인 5918명과 비교해 약 12.8% 줄었으나, 새출발기금 운영 초기인 2023년의 월 평균인 3107명과 비교해선 여전히 66%나 많은 신청 건수를 기록했다.

새출발기금은 지난 2022년 10월 출범한 정부의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90일 이하 연체 차주에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한 금리 인하를 제공하며, 90일 이상 연체 차주에는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한 원금 및 이자 감면을 제공한다.

새출발기금은 출범 당시에는 코로나19 피해 요건을 포함했지만,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지난 2024년 9월 이후 코로나19 피해 요건을 삭제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의 누적 채무조정 신청 인원은 22만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채무조정 신청액은 35조원에 달했다.

새출발기금 운영기관의 한 관계자는 "2025년 10월 4차 제도개선 이후 신청자 평균은 5540명 수준으로, 올해 신청자 수가 특별히 감소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할 정도의 감소로 보긴 어렵고, 새출발기금의 수요는 여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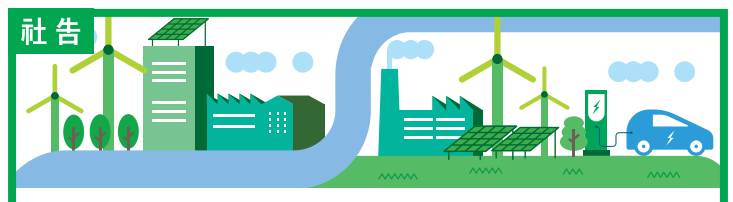
◆ '불황'…자영업 폐업 급증

새출발기금의 수요가 이어지는 것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폐업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새출발기금은 폐업 사업자를 부실우려차주로 지정해 매입형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반기 자영업자의 폐업 건수는 62만4000건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90년 이래 반기 기준 가장 많은 수치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의 창업 건수는 47만3000건을 기록해 폐업이 창업보다 1.32배 많았다. 〈3면에 계속〉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26 에너지인프라 포럼'

글로벌 에너지경쟁 우위 확보 해법

인공지능(AI) 시대, 에너지는 국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 등에 따라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송전망 확충, 발전원 다변화 등이 국가적 과제가 됐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부응해야 합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활용부터 차세대 에너지 기술 확보, 공급망 고도화까지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 환경성을 함께 고려한 최적의 에너지믹스를 찾고, '초격차'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은 이러한 과제를 진단하고 전후방 산업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대체불가 K-에너지 : 초격차 기술력과 공급망 구축'을 주제로 '2026 에너지인프라 포럼'을 개최합니다. 정부와 산업계, 학·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이 글로벌 에너지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과 인사이트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행사명 : 2026 에너지인프라 포럼
◆주 제 : '대체불가 K-에너지' : 초격차 기술력과 공급망 구축
◆일 시 : 2026년 11월 10일(화) 14:00~17:00
◆장 소 : 서울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211호
◆주 최 : 국회의원 안호영 의원실, 에너지경제연구원, 메트로미디어
◆후 원 :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문 의 : 2026 에너지인프라포럼 사무국 02)721-9818, e-메일 forum@metroseoul.co.kr

metro

올해 평균수익 -36% 개미 '필패 법칙' 확인

韓증시 매수 톱10 평균수익률
외국인 수익 -14%, 기관 4%
개인 10개 종목 모두 마이너스
외국인은 6개, 기관 4개 불과

하반기 들어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주춤하다. 그나마 매수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쏠리고 있지만, 투자 성적은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가에선 '개미 필패' 법칙이 다시 확인됐다는 말도 나온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국내 증시에서 개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7797억원 순매수)의 평균 수익률은 -36.30%였다. 개인의 수익률은 같은 기간 외국인(-13.71%)과 기관(4.26%)이 담은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순매수 상위 10개 모든 종목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개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 9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개인 순매수 1위인 삼성전기(-48.63%)를 비롯해, 삼성전자(-35.48%)와 삼성전자우(-20.80%), SK하이닉스(-51.81%), 현대차(-40.30%), 두산에너빌리티(-31.57%), 효성중공업(-45.40%), 두산(-35.17%), 한화오션(-44.87%) 등이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나았다. 외국인과 기관이 사들인 상위 10개 종목 중 마이너스 수익률은 각각 6개, 4개씩이었고 나머지는 플러스였다.

외국인은 우리금융지주(9382억원) 가장 많이 사들고, LG이노텍(6407억원)·대한항공(4270억원)·SK이노베이션(4146억원)·미래에셋증권(3529억원)·한국금융지주(3408억원)·신세계(3171억원)·기아(3144억원)·삼성E&A(3072억원)·HMM(3038억원) 순으로 순매수 규모가 컸다. 〈3면에 계속〉

/신하은 기자 godhe@

m-커버스토리

역대급 실적에도 적자… 빅테크 'AI칩 기술자립' 사활

엔비디아 의존 낮추기
GPU 엔비디아 점유율 92%
메타·마이크로소프트·오픈AI
AI칩 개발로 비용절감 나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적자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체 인공지능(AI) 칩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인프라의 최상위 포식자인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낮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ICT 업계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대다수가 엔비디아가 개발한 AI 칩을 사용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소버린 AI 거대언어모델 연구보고서'를 통해 엔비디아 칩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92.4%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엔비디아의 GPU 서버로 구성된 랙 한 대당 가격은 차세대 AI 칩 베라루빈을 기준 약 3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이 기가와트(GW)급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면 대규모 랙을 공급 받아야 한다. 일례로 정부와 SK그룹이 주도하는 국내 메가 프로젝트 투입 예산만 보더라도 15GW급 AI 데이터센터 구축 비용은 약 1000조원에 달한다.

천문학적인 AI 인프라 구축 비용은 빅테크들의 수익성을 정면으로 흔들고 있다. 메타는 올해 3분기에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하고도 잉여현금흐름(FCF)이 상장 후 처음으로 적자 전환했다. 오픈AI의 영업손실은 직전 분기에 수십조 원 단위로 불어난 상황이다.

대규모 설비 투자에 대한 지출도 부담이다. 아마존웹서비스(AWS)은 올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음에도 설비투자(캐팩스) 급증으로 현금흐름은 적자다. 마이크로소프트(MS)도 설비 투자 영향으로 올해 회계연도 4분기 자본지출이 전년 대비 두 배 가량 폭증했다.

이들은 비용 절감을 위한 전용 AI 반도체 개발에 나서고 있다. 메타는 최근 AI 반도체 프로젝트를 통해 4세대 칩 '아이리스' 생산을 시작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AI 알고리즘 등에 집중 투입될 전망이다. 오픈 AI는 첫 자체 맞춤형 AI 칩 '할라페뇨'를 선보였다. 추론 비용을 최대 절반 가량 아낄 수 있다.

AWS는 연산 성능을 높인 '트레이니움 4' 개발에 성공해 기업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MS도 차세대 AI 가속기 마이아 300을 공개했으며, 빅테크 기업 중 가장 먼저 칩 양산에 나선 구글은 현재 추론에 특화된 8세대 TPU까지 개발한 상태다.

이런가운데 엔비디아는 내년 초 출하분 부터 차세대 AI 칩 서버 가격을 15% 이상 인상한다.

/조민선 기자 msjo@

메트로 한줄뉴스



▲靑, 가상자산 과세 재유예 잠정 결론…청년 여론·제도 미비 등 고려
▲김민석, 'YS 오른팔' 故최형우 조문…"여야 민주화 뿌리 성찰해야" /사진 뉴시스
▲주진우 "22대 총선 투표소 41곳서 득표수 허위 입력"
▲국힘 "'사망설' 김정은 방중…대북 정보망 역량 허점 우려"
▲'후보 등록 전 출마 문자' 유동균 마포구청장 벌금 90만원
▲헌재 "마약류사범 2~20년 택배운수 종사 막은 화물차법 합헌"

"햇반, 잡곡 등 R&D 경쟁력 강화… 국내외 조단위 사업 도약"

CJ제일제당 햇반 30주년 간담회

30년간 누적 매출 10조원대 추산
'글로벌 초대형 브랜드' 청사진 발표
잡곡 등 건강 기능성 시장 집중 공략


햇반 생산 공정.



반도체 공장 수준의 철저한 무균실을 거쳐, 구수한 쌀냄새를 풍기며 쏟아져 나오는 붉은색 용기들. 대한민국 밥상의 풍경을 바꿔놓은 CJ제일제당 '햇반'의 모태이자 핵심 생산 기지인 충북 진천 CJ블로썸캠퍼스의 현장 풍경이다.

햇반 출시 30주년을 맞아 지난 21일 찾아간 진천 CJ블로썸캠퍼스는 글로벌 1조 5000억 원대 브랜드를 향한 대도약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CJ제일제당은 이날 현장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오는 2028년까지 햇반을 글로벌 초대형 브랜드로 키워내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밥은 한식 글로벌화의 기반입니다. 밥이 바뀌면 사람들의 생활과 식문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생활을 바꾼 밥의 혁신을 넘어, 이제 세계인이 밥을 즐기는 방식을 변화시켜 국내외 조 단위 사업 도약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국내 대표 즉석밥 브랜드 '햇반' 출시 30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숙진 CJ제일제당 식품마케팅실장(겸 한국사업본부장)은 독보적인 기술력과 식문화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1996년 12월 국내 최초 무균포장밥으로 탄생한 햇반은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는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비전에서 시작됐다.



김숙진 식품마케팅실 실장이 질의응답에 응답하고 있다. /CJ제일제당

초기에는 갑자기 밥이 부족할 때 찾던 '비상식(非常食)'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 1~2인 가구 증가와 함께 '집밥을 대체하는 일상식(日常食)'으로 자리매김했다.

햇반 브랜드는 2023년 국내외 합산 매출 1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약 1조 1000억 원 이상의 역대 최대 성과를 올렸다. 30년간 누적 매출은 올해 말 기준 약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현장에서 직접 둘러본 햇반의 핵심 경쟁력은 쌀의 수확부터 도정, 무균 포장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데이터화된 초격차 R&D에 있었다.

오예진 CJ식품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갓 지은 밥맛의 비밀로 가장 먼저 원물 관리와 자체 도정 시스템을 꼽았다. 벼를 건조할 때 45도 이하의 저온을 유지해야 밥알에 균열이 생기거나 무르지 않으며, 여름철 고온 노출 시 발생하는 지방 산패와 묵은내를 차단하기 위한 저온 보관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CJ제일제당은 국내 밥 제조사 중 유일하게 자체 도정 시스템을 갖추고 당일 도정한 신선한 쌀로 밥을 지어 품질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다. 완두콩 등 식물성 단백질을 쌀 모양으로 가공하는 성형쌀 기술 등 영양설계 플랫폼으로의 진화도 눈길을 끌었다.

햇반은 용기조차 전자레인지 조리나 끓는 물 가열 시에도 환경호르몬이 용출되지 않는 안전한 소재다. 오 연구원은 안전성과 별개로 최근 친환경 트렌드에 맞춰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천연소재 재질을 개발해 적용하는 등 지속가능한 패키징 연구를 꾸준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햇반은 단순한 편의식을 넘어 개인의 건강 니즈에 맞춘 헬스앤웰니스로 또 한 번의 진화를 이루고 있다. 특히 잡곡밥 라인업의 성장세가 매섭다. 2019년 즉석밥 매출의 10%대에 불과했던 잡곡밥 비중은 지난해 30%에 육박했다.

CJ제일제당은 집에서 이미 잡곡을 먹는 소비 비중이 높은 만큼 5년 안에는 즉석밥 시장에서도 백미와 잡곡의 비중이 비등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젊은 세대보다 50대 이상 장년층 소비자가 언제 어떤 계기로 잡곡밥으로 넘어오느냐가 시장 확대의 핵심 키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CJ제일제당은 오는 12월 식물성 단백쌀을 적용해 계란 흰자 3개 이상의 단백질 함량을 구현한 햇반 단백질 잡곡밥을 선보이며 건강 기능성 시장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해외에서의 성과도 뜨겁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60여 개국에 진출한 햇반은 최근 5년간 해외 매출이 연평균 30% 증가하며 전체 매출 중 해외 비중을 지난해 15%까지 끌어올렸다. 회사는 2028년까지 이 비중을 2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해외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과 현지 업체들과의 차별점에 대한 질의에 김 실장은 "미국 소비자들도 갓 지은 쌀밥 특유의 품질과 밥맛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며, "당일 도정 기술로 만든 한국의 찰진 밥의 품질 우위는 현지 업체들이 쉽게 따라오기 힘들다"고 단언했다. 이어 "가공식품 시장이 성숙한 미국 시장을 확고히 다진 뒤 퀴진 구조가 다채롭고 선진화된 유럽 시장으로 영역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시장 내 경쟁 심화와 점유율 유지 전략에 대해서는 정공법을 강조했다. "단기적으로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 가격을 내리거나 품질을 타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소비자가 고품질 제품을 경험하며 자연스럽게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잡곡밥 시장 전체의 파이를 넓히는 것이 본질적인 숙제"라고 말했다.

한편 CJ제일제당은 지난해 10년 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6만 5000톤의 국산 쌀을 수매하며 농가 상생을 실천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수익성과 관계없이 선천성 대사이상 환우를 위한 햇반 저단백밥을 지속 생산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다. 현장에서 느껴진 초격차 R&D 기술력과 데이터 기반의 시장 대응력은 만두에 이어 한국식 밥문화를 세계인의 식탁에 올리겠다는 햇반의 다음 30년이 기대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K-반도체 투톱, 3분기 HBM 매출 이목집중

주중 삼성·SK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
번스타인, HBM 매출 역전 가능성 제기



생성형 AI가 제작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경쟁 이미지.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HBM(고대역폭메모리) 매출에서 SK하이닉스를 추월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번 주 양사의 실적 발표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2분기 양사의 시장 점유율 격차는 절반 이상 줄어든 바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오는 28일, 삼성전자는 29일 각각 3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을 진행한다. 삼성전자는 앞서 잠정실적을 발표했지만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의 세부 실적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양사의 HBM 사업 성과와 차세대 제품 공급 현황이 주요 관심사로 꼽힌다.

글로벌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삼성전자의 3분기 HBM 매출이 전 분기보다 33% 증가한 87억달러(약 11조5150억원)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SK하이닉스는 11% 늘어난 76억달러(약 10조590억원)로, 삼성전자가 약 11억달러(약 1조4560억원) 앞섰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전망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국내 HBM 수출 통계를 분석한 결과다. 특히 수출 물량 1kg당 금액에서 삼성전자가 앞섰다. 번스타인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9월 HBM 수출 물량당 금액은 이전 수준의 두 배 이상으로, SK하이닉스의 네 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6세대 HBM4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이번 분석은 수출 통계를 활용한 추정치로 실제 매출과 제품 판매가격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실제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와의 점유율 격차를 크게 좁혔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은 전 분기 21%에서 33%로 상승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58%에서 50%로 하락했으나 1위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양사의 점유율 격차는 37%포인트(p)에서 17p로 축소됐다.

향후 시장 점유율 경쟁에서는 차세대 제품인 HBM4 공급 확대가 주요 변수로 꼽힌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2분기까지 HBM 매출 대부분이 5세대 HBM3E에서 발생했으나 하반기부터는 HBM4 출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HBM4 공급 물량과 주요 고객사 확보 여부에 따라 양사의 시장 점유율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콘퍼런스콜에서는 양사의 HBM4 공급 현황과 향후 생산 계획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특히 삼성전자의 HBM 매출 역전 여부와 차세대 제품 공급 확대 속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번스타인은 신규 HBM 공급계약에 따른 가격 인상분이 수출 통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계약 가격 상승 효과는 향후 양사의 매출에 반영될 것으로 내다봤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韓, 경상수지 흑자 증가폭 '세계 1위' 전망

GDP 대비 흑자율 통계이래 최고치 예측

우리나라가 올해 경상수지 흑자 부문 세계 2위에 자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2분기까지 3위 독일과 4위 일본에 크게 앞섰다. 한국의 흑자 규모는 제조업 강국인 두 나라의 흑자를 합한 수치보다 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이 연간 흑자 부문 2위에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또 전년대비 흑자 증가 폭의 경우, 세계 190개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25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수록된 IMF의 각국 경상수지 비교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2분기 흑자는 1166억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올해 2분기 수치가 집계된 36개국 중 중국(1937억2000만 달러)에 이어 2위다. 3위인 독일은 522억8000만 달러, 4위인 일본은 506억2000만 달러였다. 두 나라 합계는 1028억9000만 달러로 한국보다 137억4000만 달러 적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로 한국 경상흑자가 독일·일본의 합산 수치에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의 올해 2분기 흑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283억9000만 달러)의 4.1배였다. 이 기간 독일과 일본은 각각 11.9%, 5.0%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으로도 한국 경상흑자는 1910억1000만 달러로 중국(3780억3000만 달러)에 이어 2위였다. 한국은 독일(1263억9000만 달러), 일본(1121억2000만 달러), 노르웨이(553억2000만 달러), 스위스(510억3000만 달러), 네덜란드(505억4000만 달러) 등을 큰 차이로 따돌렸다.

추세는 3분기에도 지속되고 있다. 7~8월 두 달간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881억9000만 달러로 독일·일본 합산(808억2000만 달러)보다 73억7000만 달러 많았다.

IMF는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경상흑자 전망치를 4219억4600만 달러로 추산했다. 수치가 있는 190개 국가·지역 중 중국(8632억500만 달러)에 이어 2위다. 지난해 5위에서 세 계단 올랐다.

한국의 올해 경상흑자 증가 폭은 2988억9200만 달러로, 중국(1388억300만 달러)의 2.15배에 달하며 가장 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흑자율은 18.8%로 IMF 통계가 있는 1980년 이후 최고치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외환위기 직후 원화가치 급락으로 흑자가 급증했던 이전 최고치 10.1%(1998년)의 근 2배에 달한다.

국제투자은행들의 분석도 비슷하다.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8개 주요 투자은행의 한국 경상흑자 비율 전망치 평균은 9월 말 기준 올해 17.5%, 내년 17.4%였다. 불과 1개월 전 대비로도 각각 1.5%포인트(p), 2.4%p 올랐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증시 급락에도 '반등 베팅'… 개미들 빚내서 레버리지 '물타기'

반도체 ETF 이달 3154억원 순매수
SK하이닉스 2263억·삼성 891억 몰려
7월 대거 매수 후 두 달 연속 순매도
코스피 18.83% 하락에 다시 매수세
개인 투자손실 6조 넘어 부담 가중
전문가 "장기보유 주의·위험 분산"



따능 AI로 생성한 이미지.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하락에 두 배로 베팅하는 단일종목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 넉 달여 만에 60% 안팎의 손실을 냈다.

직장인 김모(36)씨는 이달 초 장모님에게 3000만원을 빌렸다. 그는 은행에서 3000만원을 빌려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5000만원어치 샀다. 손실률이 80%에 육박하고 반도체 주가가 충분히 하락했다고 판단해 '물타기(추가 매수)'에 나선 것이다. 김씨는 "여기서는 분명히 오를 것 같아 한 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손실률이 겨우 55%로 줄었지만, 익사 직전이라 고개라도 빼꼼 내밀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증시가 휘청이는 와중에도 개인투자자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가 고개를 들고 있다. 개인은 이달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2종 제외) 14종을 순매수했다. 전문가들은 단기 반등에 베팅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험을 분산하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투자한다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3145억 순매수, "이제 오를 거야"

25일 한국거래소와 코스콤 CHECK에 따르면 지난 1~23일 개인은 SK하이닉스·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14종을 총 3154억원어치 사들였다. 순매수액은 SK하이닉스 7종 2263억원, 삼성전자 7종 891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앞서 개인은 지난 7월 단일종목 레버리지 14종을 총 2조7728억원 순매수했으나 같은 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이 상향되는 등 규제가 강화된 이후 순매도세로 돌아섰다. 순매매액은 8월 -6484억원, 9월 -4979억원이었다.

개별 종목을 보면 개인은 이달 KODEX SK하이닉스 단일종목레버리지를 1529억원 순매수했다. 이는 국내 상장 ETF 중 11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뿐만 아니라 KODEX 레버리지, KODEX 반도체레버리지 등도 각각 1조448억원, 2564억원을 사들이며 순매수세가 레버리지 상품으로 쏠리는 경향을 나타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반등을 기대하는 심리가 확산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23일 코스피는 18.83% 떨어졌다.

반면에 외국인은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함께 사들이며 ETF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달 외국인은 KODEX 레버리지를 KODEX 200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483억원 순매수했다. 이와 함께 코스피200의 일간 수익률을 -2배로 추적하는 '곱버스' 상품인 'KODEX 200선물인버스2X'를 ETF 중 5번째로 많은 513억원 순매수했다.

◆투자 성향 등에 맞게 비중 가져가야

문제는 고위험 상품에 투자한 개인이 이미 큰 손실을 봤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단일종목 상장지수상품(ETF·ETN) 출시 이후 8월 14일까지 개인투자자의 손실액은 총 6조3130억원에 달했다. 실제 매매로 확정된 손실이 2조3242억원, 보유 상품의 평가손실이 3조9888억원이었다. 최근 10월 폭락에 따른 손실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연령별로는 40대 이하의 손실액이 3조3482억원으로 전체의 53.0%를 차지했다. 40대가 2조53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50대(1조8655억원), 30대(1조912억원)가 뒤를 이었다.

미국 레버리지 ETF 전문 운용사인 Tradr ETFs(트레이더 ETF)의 러셀 텐서 사장은 지난달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레버리지 ETF의 성장성을 강조하면서도 장기 보유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매일 수익률 배수를 재설정하는 상품은 보유 기간이 길어지면 기초자산의 누적 수익률과 ETF 수익률 사이에 차이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일 재설정되는 상품을 1주일 이상 보유하면 원치 않는 복리 효과가 발생해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레버리지 ETF를 포트폴리오에 얼마나 담을지도 투자자마다 달라야 한다고 했다. 텐서 사장은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레버리지 비중을 얼마나 가져갈지는 위험 추구 성향과 연령, 레버리지 활용 적합성에 따라 달라진다"며 "본인이 어떤 성향인지 명확히 알고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소상공인 폐업률 소매·음식점업 최고

›› 1면 '불황의 그림자… '서 계속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률이 가장 높은 업종은 소매업(15.40%)과 음식점(15.14%)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 비중이 특히 큰 6대업종(제조·도매·소매·음식·숙박·서비스)의 폐업률은 11.08%를 기록했다. 폐업 사업장 가운데 49.2%는 3년 이상 영업한 사업장이었다. 특히 지난해 폐업한 소상공인의 68.5%는 빚을 보유했고, 평균 부채도 사업장당 8500만원에 달했다. 중기부 조사에 따르면 폐업 소상공인들의 50.4%는 사업 부진을 폐업 사유로 꼽았고, 62.5%는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고객이 줄어 경영난이 심화했다고 응답했다.

◆ 새출발기금 올해 말 종료

새출발기금의 수요는 여전하지만, 새출발기금은 올해 말 운영 종료를 앞뒀다. 정부는 지난 2024년 9월 새출발기금의 신청 요건에서 코로나19 피해요건을 삭제하면서 신청 기간을 2026년 말까지로 정했는데, 이후 2025년 3월과 2025년 9월 두 차례의 지원 대상 확대에도 운영 기간은 확대하지 않았다.

새출발기금을 주관하는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의 운영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영업자의 여러 상황과 고금리 상황을 고려했을때 새출발기금의 연장 필요성이 굉장히 클 것 같다"라고 밝혔다.

/안승진 기자 asj1231@

개인 반도체 저가 매수… 外人·기관 매도

›› 1면 '역대급 실적에도 적자… '서 계속

개인이 '반도체 투톱'의 주가 하락을 매수 기회로 판단한 것과 달리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에 나서면서 투자 주체별 판단이 엇갈렸다.

하반기 개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삼성전자(2조4418억원)와 삼성전자우(1조1456억원), SK하이닉스(1조3743억원)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세 종목의 순매수 금액은 총 4조9617억원으로, 같은 기간 개인의 코스피 전체 순매수 금액의 약 6.4배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개인들이 조바심을 버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단기 수익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험 분산도 중요하다. 편득현 부부장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 말고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원한 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는 "섣부른 추격 매수는 피해야 한다"며 "수익을 내려면 '공포에 (주식을) 사고 탐욕에 판다'는 격언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안정적 LNG·ESS 확보… 반도체클러스터 공급망 '타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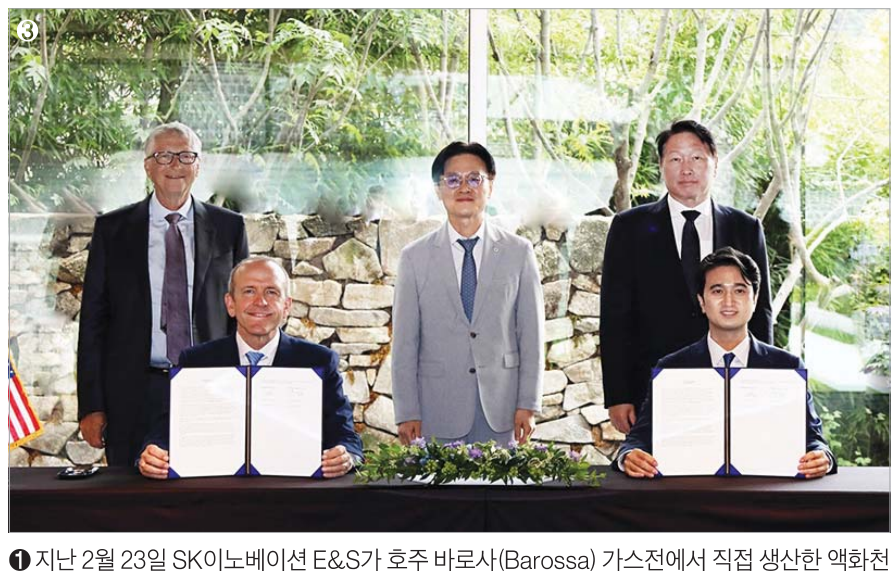
⑥ SK이노베이션

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AI)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기업의 가동 일정에 맞춰 전력과 열을 공급할 에너지 인프라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서도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발전이 공급 방안으로 거론되면서 LNG 조달부터 발전까지 사업 기반을 갖춘 SK이노베이션의 역할에 관심이 모인다.

SK이노베이션은 해외 LNG 사업을 지속해 오는 가운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열병합발전소 건설 등 대규모 산업시설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 기반을 넓히고 있다. 여기에 SK온의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와 테라파워의 소형모듈원자로(SMR)기술을 연계해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에너지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❶ 지난 2월 23일 SK이노베이션 E&S가 호주 바로사(Barossa) 가스전에서 직접 생산한 액화천연가스(LNG)가 보령 LNG 터미널에 첫 입항하였다. ❷ 지난 5월 18일(현지시간) 베트남 응에안성 떤마이 지구에서 열린 '뀐랍 LNG 프로젝트 기술 인프라 착공식'에서 추형욱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오른쪽에서 두 번째)를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❸ (앞 오른쪽부터) 추형욱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크리스 르베크 테라파워 CEO가 지난 8월 14일 서울 종로구 선혜원에서 SMR 사업 협력 주요 조건 합의서를 체결하고 (뒤 오른쪽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정관 산업부장관, 빌 게이츠 테라파워 이사회 의장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SK이노베이션

◆호남 공정용 열 공급 검토…용인서 열병합발전 추진

반도체 클러스터는 전력뿐 아니라 공정에 필요한 열·증기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는 방식 중 하나가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LNG 열병합발전이다. 천연가스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회수해 공정용 증기 등으로 공급한다.

정부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을 원전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공정용 열·증기 수요에 따라 LNG 열병합발전소 건설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앞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반도체에도 열 스팀이 필요할 수 있어서 LNG발전소를 지을 수도 있다고 하는 여지를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공장의 열·증기 수요에 대응하는 LNG 열병합발전사업은 용인에서 이미 추진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E&S는 한국중부발전과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1050㎿(메가와트) 규모의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발전소는 시간당 517Gcal(기가칼로리) 규모의 열 생산설비를 갖춰 클러스터 내 팹 1~4기에 공정용 증기를 공급할 예정이다. 생산한 전기는 전력시장에 판매할 계획으로, 2030년 2분기 상업 가동을 목표로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도 공정용 열 공급을 위한 LNG 열병합발전소 건설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용인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SK이노베이션 E&S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열·증기 필요
LNG 열병합발전소 건설도 염두
용인선 1050㎿ 규모 발전소 건설 중

호주 바로사 가스전 개발 참여해
향후 20년간 年 130만톤 LNG 확보
베트남서 현지 발전·산단개발 연계

◆해외 가스전서 연료 확보…베트남은 발전·산업단지 연계

반도체 공장에 전력과 열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발전소를 가동할 연료도 확보해야 한다. SK이노베이션 E&S는 해외 가스전 개발과 장기 도입계약으로 LNG를 조달하고 이를 국내 발전소에서 활용하는 공급망을 갖추고 있다.

호주 바로사 가스전 개발에 참여해 향후 20년간 연간 약 130만톤(t)의 LNG를 확보한 것도 이러한 연료 조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기존 다윈 LNG 터미널을 개조해 활용하면서 투자 부담을 낮췄으며 직접 생산한 물량을 도입해 현물시장 구매 비중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에서는 LNG 공급망을 현지 발전·산업단지 개발과 연계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국영 발전사 PV파워, 현지 기업 NASU와 응에안성 뀐랍 지역에 1.5GW(기가와트) 규모의 LNG 복합화력발전소와 LNG 터미널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월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했으며 2030년 12월 상업운전 개시를 목표로 한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인근 첨단산업단지에 공급하고 AI 데이터센터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응에안성·SK텔레콤과 협력해 데이터센터 구축과 전력 공급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전력 저장부터 차세대 발전까지 사업 확장

SK이노베이션은 발전사업과 함께 자회사 SK온을 통해 전력 저장에 필요한 ESS용 배터리 공급도 확대하고 있다. ESS는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간에 공급해 수요 변화와 재생에너지의 출력 변동에 대응하는 설비다.

SK온은 ESS용 배터리 수요에 맞춰 국내외 생산라인을 전환하고 있다. 충남 서산공장의 전체 생산능력 7GWh(기가와트시) 가운데 3GWh를 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생산라인으로 전환해 2027년 상반기부터 납품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ESS 기업 네오볼타 파워와 계약을 맺고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9GWh 규모의 LFP 파우치 배터리 셀을 공급한다. 해당 물량은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생산할 계획이다.

중장기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미국 원전 개발기업 테라파워와 SMR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이 투자한 테라파워는 차세대 원자로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양사는 8월 사업 협력 주요 조건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에는 미국 실증로와 후속 상용 프로젝트의 SK이노베이션 참여 확대, 국내 공급망 활용, 국내 SMR 사업 개발 등의 협력 방안을 담았다. 테라파워가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추진하는 케머러 사업은 2031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한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실증사업 참여를 통해 설계·건설·운영 경험을 확보하고 이를 국내 적용 가능성 검토와 글로벌 사업 개발에 활용할 방침이다. 국내에서는 규제와 산업 여건, 전력계통 등을 검토해 SMR 사업의 추진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SK온 통해 ESS용 배터리 공급 확대
美 기업에 LFP 파우치 배터리 셀 공급
테라파워와 SMR 사업 추진 등 통해
설계·건설·운영 경험, 국내 적용 검토

가동 시점·전력 규모 함께 살피고
계획된 발전·송전 적기 확보해야

◆2030년 전력수급 점검…수요 검증·설비 확보 병행을

반도체·AI 메가프로젝트의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는 기업의 가동 일정에 맞춰 발전설비와 송전망을 확보하고 ESS와 수요 관리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장기적인 신규 전원 개발과 별도로 2030년까지 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 설비와 운영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계획된 발전·송전설비와 태양광·풍력 설비 100GW(기가와트)가 확보되는 조건에서 온실가스 배출한도를 지키면서 2030년 추가 전력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도체 추가 수요를 모두 반영하고 데이터센터 수요를 50% 적용한 경우 LNG 발전량은 207.2TWh(테라와트시), 이용률은 40.6%였다. 같은 설비 조건에서 데이터센터 수요를 100% 적용하면 각각 244.0TWh, 47.8%로 높아졌다. 배출한도 안에서 늘어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줄이고 LNG 발전을 늘리는 결과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수요 변화에 대응하려면 기업의 투자 확정 여부와 사업 진척을 공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같은 설비를 갖추더라도 실제 전력 수요에 따라 발전소 운영이 달라지는 만큼 기업의 가동 시점과 전력 사용 규모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전력망 접속 과정에서도 재생에너지 조달과 ESS 설치, 전력 사용 시간이나 규모를 조절하는 수요 유연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30년까지는 이미 계획된 발전·송전설비를 적기에 확보하고 기존 설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 새로 건설을 결정하는 원전·SMR·LNG 발전설비는 건설 기간을 고려할 때 2030년 수급에 기여하기 어려운 만큼, 계획된 설비의 준공·접속 일정을 기업의 가동 일정과 맞춰 점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전력 인프라는 건설 기간이 길고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다"며 "한번 투자하면 수요가 변하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전력수요 전망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조금 더. 해보고 싶어
조금 더. 잘하고 싶어
조금 더. 좋아지고 싶어
조금 더. 도전하고 싶어

이 작은 마음에
전부를 걸었던 때가
누구에게나 있다

아직도
이 작은 마음에
전부를 걸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

“오늘도 조금 더”

We Do Technology | SK hynix

초심

여론도 계파도 흔들… 신천지 의혹에 깊어지는 민주당 내홍

김민석 대표 긍정 평가 25.6%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보다 낮아
신천지 의혹 조사 공개 범위 쟁점
친청계,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압박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방위산업지원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민석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여론조사 등에서 반등하는 흐름을 만들지 못하는 가운데, 신천지 당원 집단 가입 및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둘러싼 계파전까지 벌어지며 내홍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21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1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김 대표의 직무수행에 대해 긍정 평가한 비율은 25.6%로 조사됐다. 부정 평가는 67.6%다. 같은 조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긍정평가 33.6%, 부정평가 59.5%를 기록해 김 대표보다 긍정 평가가 8.0% 포인트 높았다.

정치권이 우려스럽게 분석하는 것은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호남 지역의 응답이다. 이번 조사에서 김 대표에 대한 부정평가는 전남광주·전북에서도 53.3%로 긍정 평가 39.1%보다 14.2%포인트 높았다. 김 대표가 8·17 전당대회에서 호남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경쟁 후보였던 정청래 전 대표를 꺾은 바 있는데, 취임 두 달 후 조사에서 호남에서도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

리얼미터는 "김 대표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25.6%에 그친 것은 당내 계파 갈등에 더해, 최근 추미애 경기지사와 부승찬 민주당 의원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이 당 이미지와 지도부 리더십에 부담을 준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도부 내 계파 대립의 주요 원인인 신천지 당원 집단 가입 의혹은 김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먼저 제기했지만, 출구전략이 마땅치 않아 갈등 양상이 그대로 표면에 드러나는 모양새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당시 "반명(反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의 비밀 연합을 끊어내야 한다"며 친청(친정청래)계와 이를 연결시킨 바 있는데, 지도부 내 입성한 친청계 최고위원은 연일 공개 최고위에서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TF)에서 조사한 내용을 사실대로 공개하라며 압박하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신천지 신도의 민주당 당원 집단 가입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표는 구체적인 가입 규모를 밝히진 않았지만, 관련 증언도 당 내 기구에서 확보하고 있다며 근거 있는 주장임을 확인했다.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최고위원회의 공개발언에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검사와 수사관 수십 명이 8개월 동안 수사하고서도 국민의힘 외에 다른 정당에 대한 신천지의 조직적 정당 가입 및 선거 개입 의혹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이제 우리 당을 분열시키고 당원들에게 상처를 준 신천지 개입 의혹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국민과 당원께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신천지 의혹 조사를 주도한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 단장인 친명(친이재명)계 박선원 최고위원은 "소통관(기자회견장)에서 공개 발표하겠다. TF 단장으로서 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맞대응했다. 비공개 최고위에서 김 대표 등이 박 최고위원을 만류하며 기자회견은 열리지 않았다. 민주당에 따르면, 김 대표는 신천지 관련 후속 조치를 국정감사 이후에 결정할 예정이다.

정청래 의원은 "조사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면 된다.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조치하면 된다"며 "싸우지 말라. 있는대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을 둘러싼 당내 내홍은 조사 결과 공개 절차를 거치며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를 포함한 후속 조치까지 분명하게 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의원총회 등에서 당 내부 공개에 그칠지 혹은 대중 공개 절차를 거친 후 수사 의뢰까지 이어질 지 관심이 모인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막바지 국감도 정쟁 얼룩… 민생·정책 실종

증인 채택 갈등·상임위 파행 반복
종합감사·겸임 운영위 국감만 남아

올해 국정감사가 이번주 26~27일 주요 상임위 종합감사와 28~30일 겸임 상임위원회 감사 일정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여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확보했지만, 여야가 피감기관에 대한 충실한 감사보다 자극적인 이슈 몰이로 국감 파행을 일삼았단 지적도 나온다.

국회는 이번주 초인 26~27일 법제사법·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보건복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종합감사를 연다. 겸임 상임위원회인 운영·정보·성평등가족위원회 감사는 28~30일에 차례로 열린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여야가 격돌하는 모습을 재현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후 조 대법원장의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검토하고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노위)에선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에 포함된 노동 특례를 두고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첨단기업 고소득 종사자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제 면제 등 노동특례를 포함한 안을 발의했고 기노위 소속 최기상 의원은 노동특례가 포함되지 않은 안을 발의했다. 여당은 노사정의 초광역특구법 안에 노동 특례 도입 여부를 두고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두 안을 병합 심사해 최종안을 만들 계획이다.

오는 29일엔 대통령실을 감사하는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 야당이 핵심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던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끝내 국감장에 나오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전 실장에게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정책 설계와 집행 과정을 따져 묻고 김현지 실장에게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 '경기·성남 라인 공공기관 알박기' 의혹 등을 질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운영위는 지난 21일 이 두 사람을 뺀 일반증인만을 범여권 주도로 채택했다.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 하준경 정책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운영위 국감장에 선다.

한편, 이번 국감은 새로운 이슈로 주목받는 의원들의 질의가 돋보이기보다, 잦은 파행을 일삼고 자극적인 '쇼츠' 영상 생산에 골몰하는 의원들의 행태가 반복돼 눈살을 찌푸렸다. 여당의 각 상임위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쟁점 사안을 질의하기 위해 야당 의원이 요구하는 일반 증인은 거의 채택되지 않으며 제대로 된 민생·정책 국감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박태홍 기자

법무부 장관 후보군 박균택·양부남 압축

모두 검찰 출신 친명계 호남 초선 의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왼쪽부터) 등 2명의 검찰 출신 의원으로 압축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뉴시스

두 달째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 등 2명의 검찰 출신 의원으로 압축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청와대는 지난달 19일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이후 후보군을 원점에서 다시 물색해왔다. 공소청이 출범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을 빠르게 인선해 조직을 안정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날 청와대 안팎의 소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장고 끝에 박균택·양부남 의원을 놓고 고심하고 있으며, 인선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지난 8·30 개각 당시에도 법무부 장관 후보군 하마평에 오르내린 바 있다.

후보군으로 압축된 두 사람 모두 검찰 출신의 친명(친이재명)계 호남 초선 의원이다. 박 의원과 양 의원 모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했으며, 당에서 법률특보나 법률위원장 등을 맡았다.

수사·기소 분리로 이달 초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막 출범한 시기임을 고려해, 검찰 내에서 요직을 거친 베테랑 검사 출신인 이들이 적임자라고 본 셈이다. 새 법무부 장관은 달라진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키고, 과도기적 상황을 맞은 조직을 이끌어나가며 관계기관 간 업무 조정 능력도 필요하다.

박균택 의원(사법연수원 21기)은 법무부 검찰국장과 광주고검장,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검찰국장 시절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실무나 검찰 인사·조직·예산 등 행정 전반을 다뤘고, 노무현 정부 땐 사법·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한 대통령 자문위원회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파견된 이력이 있다. 2024년 총선에서 광주 광산갑에 당선됐고, 민주당에선 이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2022년에 법률특보를 지냈다.

양부남 의원(사법연수원 22기)은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광주지검장, 의정부지검장, 부산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검찰에선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등을 수사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도 거론된 바 있다. 일선 검찰청과 고검을 지휘하며 수사와 사건 처리, 조직을 관리한 경험이 있다는 평가다. 2024년 총선에서 광주 서을에 당선됐고, 당에선 법률위원장을 맡았다.

이처럼 최종 후보군이 2명으로 압축됐다는 소식이 들리며 이 대통령이 조만간 인선을 단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법무부 장관 공석 상황은 현 정부 초대 장관이었던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이임한 지난 8월26일 이후 60일, 지난 2일 공소청 출범 이후로는 23일째 이어지고 있다.

다만 김승원 전 후보자가 낙마하는 과정에서 큰 파장이 있었던 만큼, 신중하게 여론을 살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 조작기소 특검법' 논의 과정에서 공소취소 부분은 빼 달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야권에선 여전히 공소취소를 두고 공세를 펼치고 있어서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균택·양부남 의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대통령 본인 죄 지우기 인선인가"라고 꼬집었다.

/서예진 기자 syj@

오세훈, 사법리스크 털고 대권 가도 탄력

항소심 무죄… 국힘 내 세력 결집 주목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법리스크' 고비를 넘기면서 대권 가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보수 진영의 대선주자로 존재감을 키우는 오 시장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 시장은 1심에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몰린 바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상고를 할 방침이지만, 2심이 무죄가 나온 만큼 대법원 재판을 앞두더라도 운신의 폭이 넓어진 셈이다.

오 시장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열세 속에서도 서울시장 5선에 성공하며 대권 주자 경쟁력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거기에 이번 무죄 판결까지 더해지며 강경 노선과 대립각을 세워온 비당권파 인사들이 오 시장을 중심으로 결집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또 당권파나 친한(친한동훈)계 양쪽 모두 포함되지 않았던 중간지대 인사들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번 무죄 판결을 계기로 오 시장에게 합류하면 향후 보수 통합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움직임이 내년에 있을 전당대회나 총선을 앞둔 당내 주도권 경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예진 기자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Shinhan



연금리더와 함께 여는
더 나은 내일

퇴직연금은 신한투자증권

[연금 전문가들의 체계적 관리]

[IRP 자산·운용관리 수수료 무료]
(펀드 보수 등 별도 발생 가능)

[최대 총 148.5만원 절세 혜택]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16.5% 기준/ 초과 시 13.2% 118.8만원
연간납입금액 연금저축+ IRP 900만원 한도 기준)

[투자 유의사항] ※투자자는 금융상품 <퇴직연금>에 대하여 신한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IRP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IRP 운용/자산관리 수수료율: 0% ※펀드 보수 등 상품별 자체 비용 및 증권 거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 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6-1909호(2026.10.20 ~ 2027.10.20)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6-05114호 (2026.10.20 ~ 2027.10.20)

신한투자증권

“금리 인상기, 싼 이자 찾아라” 변동 vs 고정 주담대 저울질

5대 은행 주담대 변동금리 상승에
변동형-고정형 금리격차 좁아져
한은, 변동형 추가상승 시사에
고정형 주담대 선택 차주 늘어



Chat GPT가 생성한 이미지.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면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고정형 주담대와의 금리 격차가 좁아지면서 새로 주담대를 받으려는 실수요자들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낮은 금리를 보고 변동형 주담대를 선택했던 기존 차주들도 고정금리로 갈아탈 지를 저울질 하는 모습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23일 신규 코픽스 기준)는 연 4.42~6.795%로, 9월 말보다 하단이 0.07%포인트(p), 상단은 0.03%p 올랐다.

이는 변동금리 주요 지표인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가 3.18%에서 3.43%로 0.25%p 상승했기 때문이다.

반면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4.62~6.993%로, 9월 말보다 상·하단이 0.28%p씩 오히려 하락했다. 고정금리의 주요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는 같은 기간 4.525%에서 4.283%로 내린 영향이다.

이에 따라 변동형 주담대와 고정형 주담대의 금리 격차도 좁아지고 있다. 9월 말 고정형 주담대 금리차이는 0.508%p까지 벌어졌지만 이달 들어 0.198%p로 줄었다. 기준금리 인상 이후 코픽스 등 변동형 상품인 단기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변동금리의 상승폭이 고정금리보다 커진 탓이다.

고정금리 주담대는 통상 3~5년간 금리가 고정된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상품으로, 금리 변동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대신 초기 금리는 상대적으로 높다. 변동형은 통상 6개월마다 금리가 조정돼 금리 인상 위험에 노출되지만 초기 금리는 낮은 편이다.

문제는 한국은행이 내년까지 통화 긴축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고정형 주담대를 선택하는 차주도 다시 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주담대에서 고정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35.3%로 전월(31.9%)보다 3.4%p 상승했다. 고정형 비중이 상승한 것은 10개월 만이다. 향후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확대를 우려한 차주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감수하더라도 고정형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기라고 해서 무조건 고정형 주담대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조언한다. 현재 고정형 주담대 금리에는 향후 금리 인상 전망이 상당 부분 선반영돼 있는 데다, 내년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면 변동금리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리가 높은 시점에 장기간 대출금리를 고정할 경우 향후 시장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이자 부담을 줄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이미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상한 데다 향후 추가 인상도 한 차례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주담대 금리는 과거와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향후 3~5년 내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현 수준에서 5년 또는 10년간 금리를 고정하기보다 변동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하나금융그룹, 누적 순익 3.6조 ‘실적 견조’

3분기 누적 순익 5.6% 증가
자사주 소각 확대… 연간 9490억
누적 수수료수익 2.1조, 30% 늘어

하나금융그룹이 올해 3분기까지 3조6000억원이 넘는 누적 순이익을 거두며 견조한 실적 성장세를 이어갔다. 수수료이익 확대와 수익구조 다변화에 힘입어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증가한 가운데, 연간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도 역대 최대인 949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5일 하나금융그룹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연결당기순이익은 3조624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1909억원) 증가했다. 3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2214억원으로, 올해 매 분기 1조2000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실적 개선에는 자산관리(WM)와 투자은행(IB) 부문을 중심으로 한 수수료이익 확대가 주효했다.

하나금융의 3분기 누적 수수료이익은 2조142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8%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핵심이익에서 수수료이익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같은 기간 19.6%에서 올해 22.3%로 2.7%포인트 상승했다.

이자이익은 7조483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자이익과 수수료이익을 합한 핵심이익은 9조626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2%(1조1953억원) 늘었다.

하나금융은 실적 성장과 함께 주주환원도 확대한다. 이사회는 2500억원 규모의 추가 자사주 매입·소각과 주당 1165원의 분기 현금배당을 결의했다. 분기 배당금은 전년 동기 대비 26.6% 증가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3분기까지 매입을 완료한 자사주 6990억원을 포함한 연간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 규모는 총 949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7541억원보다 25.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62%, 총자산이익률(ROA)은 0.71%를 기록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추정치는 15.45%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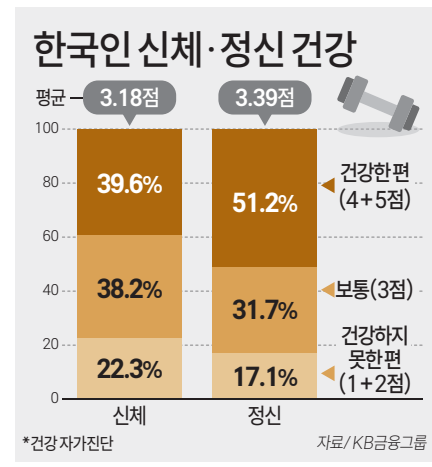
주력 계열사인 하나은행의 3분기 누적 연결당기순이익은 3조315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1824억원) 증가했다. 3분기 순이익은 1조1946억원이다.

하나은행의 누적 수수료이익은 87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5%(904억원) 늘며 3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퇴직연금과 방카슈랑스 등 수수료 수익 확대와 외환 관련 이익 증가가 실적을 뒷받침했다.

/나유리 기자

국민, 91% 정신건강 중요… 관리 36% 그쳐

KB금융, 2026 한국 웰니스 보고서
‘수면’ 건강관심 분야 2년 연속 1위
‘스트레스 관리’ 52%로 2위 올라
평균 수면 2년새 6.5→6.3시간 감소



한국인의 건강관리 관심이 신체 건강에서 정신 건강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실제 수면시간은 줄어드는 등 건강관리 인식과 실천 사이에는 여전히 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KB금융그룹은 25일 한국인의 신체·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과 관리 행태, 새로운 건강관리 트렌드를 분석한 ‘2026 한국 웰니스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관리 관심 분야에서 ‘수면’이 54.0%로 2024년에 이어 2회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스트레스 관리’는 51.9%로 2년 전보다 5.3%포인트(p) 상승하며 2위에 올랐다. 반면 ‘식단관리’는 44.3%로 2.7%p 하락해 3위를 기록했다.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과 실제 관리 수준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응답자의 90.7%가 정신 건강을 웰니스의 주요 영역으로 꼽았지만, 실제 정신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는 응답은 35.7%에 그쳤다. 마음 돌봄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26.3%에 불과했다.

수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과 달리 실제 수면시간은 감소했다.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2024년 6.5시간에서 올해 6.3시간으로 줄었다. 하루 7시간 이상 자는 응답자 비율도 41.6%로 2년 전보다 8.8%p 감소했다. 수면의 질이 나쁘다고 평가한 응답자들은 ‘잠들기 직전 휴대폰 사용’(45.9%)을 가장 큰 방해 요인으로 지목했다.

운동 목적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스트레스 해소 등 ‘정서적 환기’를 위해 운동한다는 응답은 34.8%로 2년 전보다 13.3%p 증가했다. 특히 40대와 50대에서 각각 14.9%p, 17.6%p 늘었다. 운동 방식에서는 러닝·조깅·등산 등 야외 활동이 38.5%로 4.8%p 증가했다.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을 의미하는 ‘웰에이징(Well-aging)’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응답자의 59.9%가 웰에이징에 관심이 많다고 답했지만 실제 관리하고 있다는 비율은 29.8%에 머물렀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도 확산하고 있다. 응답자의 52.4%가 건강관리를 위해 디지털 기기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66.5%는 주 3회 이상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의료 목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6.2%였다. Z세대에서는 55.5%로 더 높았다. 특히 정서·심리 상담을 위해 AI를 활용하는 비율은 베이비부머 세대 12.6%에서 Z세대 37.1%로 높아졌다.

비만치료제로 주목받는 위고비와 삭센다가 대표적인 GLP-1의 인지도는 78.0%였으며, 이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0.3%였다. Z세대의 이용 경험률은 16.5%로 베이비부머 세대(2.9%)보다 높았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이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몸과 마음, 사회적 관계까지 아우르는 삶 전체의 건강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보고서가 한국인의 웰니스 지형 변화를 이해하고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25~6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5일까지 실시한 온라인·모바일 설문조사와 표적집단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나유리 기자

BNK부산은행

지속가능 성장 논의 59주년 창립기념식


BNK부산은행 경영진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NK부산은행

BNK부산은행이 ‘59주년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BNK부산은행은 지난 23일 BNK부산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임직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9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지난 59년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BNK부산은행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변화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영방향을 논의했다.

BNK부산은행은 향후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수익성 중심의 경영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공고히하고, 부산과 동남권의 산업적 특성을 살린 해양·산업금융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해양금융 분야에서는 선박금융을 넘어 항만·조선·해운 등으로 금융 지원 영역을 확대한다. 아울러 산업금융 분야에서는 지역 첨단산업과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등 지역 산업 전반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인공지능(AI)과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과 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자산관리·기업금융·투자금융 등 핵심 분야의 금융전문가 육성을 통해 직원들의 전문성과 조직 경쟁력도 제고한다.

BNK부산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를 모든 업무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상품과 서비스, 업무 전반에 걸친 사전 예방 중심의 소비자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성주 BNK부산은행장은 “지난 59년간 부산은행을 믿고 함께해 주신 고객과 지역사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지역경제에 힘이 되는 금융과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전기차 100만대 시대… 정비산업은 인력·장비 등 태부족”

오토살롱테크 컨퍼런스

첨단자동차 정비산업 과제 논의
인프라·정보 접근성 등 장벽 지적
“수리 결과 검증체계도 마련해야”



유영준 카테크 대표가 지난 23일 경기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6 오토살롱테크 컨퍼런스’에서 전기차 정비 인프라의 현황과 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

국내 전기차가 100만대를 넘어섰지만 정비 인프라는 보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고전압 배터리를 다룰 전문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데다 차종별 정비정보 접근도 어려워 소비자의 제조사 공식 서비스센터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이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와 오토살롱테크 조직위원회는 지난 23일 경기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전기차 고장 나도 수리할 곳 없다’를 주제로 ‘2026 오토살롱테크 컨퍼런스’를 열었다. 이날 전문가들은 전기차 정비산업의 과제로 전문인력과 장비, 정비정보 부족을 공통으로 꼽았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보고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119만1873대로 전체 등록 차량 2670만6123대의 4.5%를 차지했다. 지난 6월 말보다 9만6655대 늘어난 규모다. 전기차 보급 초기 차량이 5~8년 차에 접어들면서 보증기간 종료 이후의 정비 수요도 점차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일선 정비업체가 전기차 작업 환경을 갖추기는 쉽지 않다. 절연공구와 고전압 진단기, 배터리 리프트뿐 아니라 차량과 배터리를 분리해 보관할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발표 자료에서는 전기차 정비 베이 한 곳을 구축하는 데 최소 1500만~3000만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유영준 카테크 대표는 전문 셀 밸런싱 장비 가격이 600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비 방식도 부품 교환에서 데이터 진단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전기차는 배터리 건강상태(SOH)와 셀 간 전압 차이, 절연 상태, 충전장치, 구동모터, 열관리 시스템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와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이 확산하면서 소프트웨어 버전 확인과 센서 교정, 수리 후 기능 검증도 정비 영역으로 들어왔다.

이병학 차량기술사회 회장은 “이제는 진단기와 통신장비가 없으면 진단조차 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며 “앞으로 정비사는 단순히 부품을 교환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장 데이터를 해석하는 진단사나 정보처리사에 가까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종별 정비·유지관리 정보(RMI)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성도 과제로 꼽힌다. 현행 제도는 제작사가 독립 정비업체에도 정비 장비와 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구독료와 인증 절차, 보안 권한 등의 장벽이 여전하다는 설명이다.

수리를 마친 차량의 기능과 안전성이 정상적으로 회복됐는지를 검증하고 책임 소재를 구분할 기준도 필요하다. 업계는 실습 중심의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고가 장비와 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권역별 정비거점과 전문업체 협력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성용 중부대학교 교수는 “전기차와 첨단자동차가 발전할수록 정비는 더 어려워진다”며 “정비정보에 실제로 접근하고 위험 작업에 맞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는 한편 수리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혁기자

sh95@metroseoul.co.kr

포스코, ‘지역상생·준법경영’ 사회적 책임 강화

포항·광양 등 지역사회 접점 확대
디지털 기반 내부통제 체계 구축

포스코가 지역사회와의 상생 활동을 확대하는 동시에 준법경영 체계를 강화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넓히고 있다.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디지털 기반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병행하며 지속가능 경영의 기반을 다지는 모습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포항과 광양에서 문화·관광 시설을 조성해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한 두 도시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포스코는 2021년 포항지역에 복합문화공간 ‘파크1538’과 체험형 조형물 ‘스페이스워크’를 조성했다. 포스코가 건립해 포항시에 기부한 스페이스워크는 높이 25m, 총길이 333m 규모로, 누적 관람객 400만명을 넘어서며 지역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다. 광양에서도 지난해 4월 ‘파크1538 광양’을 개관한 데 이어 이달 8일 구봉산 정상에 총길이 365m, 높이 27m 규모의 ‘파노라마 워크’를 공개했다. 광양시와 협력해 조성한 시설로 지역의 산업과 역사, 자연을 연결하는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다만 조형물과 문화공간 조성이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숙박·외식·상권 소비 등 지역 내 경제활동으로 이어지는지가 상생 효과를 가늠할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포스코가 조성한 문화공간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운영과 지역사회 연계에 달려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을 넘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파급효과를 만들어내는 상생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포스코는 준법경영 측면에서도 성과를 인정받았다. 포스코는 지난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컴플라이언스 어워즈’에서 민간기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02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한 이후 공정거래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해 온 점과 디지털 기반 준법관리 역량 등이 평가에 반영됐다.

포스코는 사전심의와 자율점검, 위험성 평가, 교육, 신고 및 사후조치를 연계해 공정거래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반 ‘공정거래 GPT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협력기업 대상 준법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거래 생태계 전반으로 준법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과 투명한 경영 체계는 기업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포스코는 지역과의 협력 기반을 넓히는 동시에 준법관리 체계를 고도화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

덩치 키우고 더 똑똑하게… 패밀리카 ‘질주’

YG의 카톡 car talk

현대차 ‘디 올 뉴 투싼’
넓은 실내 공간 등 가족단위 이동 초점


현대차 5세대 디 올 뉴 투싼. /양성운 기자

2004년 처음 출시된 투싼은 지난해 현대차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최초로 글로벌 누적 판매 1000만대를 돌파하며 글로벌 대표 모델로 자리 잡았다. 5세대 모델은 현대차의 디자인 철학 ‘아트 오브 스틸’을 바탕으로 디자인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차체 크기와 상품성을 키웠다.

신형 투싼은 기존 모델보다 전장 60㎜, 전폭 40㎜, 전고 20㎜, 휠베이스 30㎜ 늘어났다. 2열 레그룸과 헤드룸도 각각 14㎜, 29㎜ 확대돼 패밀리 SUV로서의 공간 활용성을 강화했다.

주행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1.6 터보 가솔린 인스퍼레이션 모델을 타고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출발해 자유로를 거쳐 경기 김포시 양촌읍의 한 카페를 들렀다가 돌아오는 약 92㎞ 구간을 달렸다.

차체가 커진 만큼 기존 모델의 날렵한 움직임보다는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승차감이 먼저 다가왔다. 방지턱을 넘거나 노면이 고르지 않은 구간에서도 차체 흔들림이 크지 않았고, 일상 주행에서 탑승자에게 전달되는 충격도 비교적 적었다.

파워트레인 변화도 눈에 띈다. 가솔린 모델은 대용량 터보차저를 적용해 최고출력 193마력(PS)을 확보했다. 8단 자동변속기를 채택해 변속 충격을 줄이고 부드러운 주행감을 구현했다.

신형 투싼의 또 다른 변화는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플레오스 커넥트’다. 현대차 SUV 가운데 처음 적용된 이 시스템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글레오 AI’를 통해 차량 내에서 자연어 기반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일상적인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형 투싼은 넓어진 실내 공간과 부드러워진 승차감, AI 기반 편의 기능을 앞세워 일상과 가족 단위 이동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가속 성능에서 느껴지는 아쉬움을 감안하면 주행의 역동성보다는 편안함과 공간 활용성, 디지털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자에게 더욱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성운 기자

LG전자, 쉴링에 상업용 세탁가전 공급

獨 유통망 확보… 현지 공략 강화

LG전자가 올해 유럽 상업용 세탁가전 매출을 20%가량 늘린 데 이어 독일 유통망을 확보하며 현지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LG전자는 다음 달 독일 세탁 솔루션 기업 쉴링에 대용량 상업용 세탁가전 ‘LG 프로페셔널’을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쉴링은 독일 전역의 세탁소와 빨래방에 장비를 공급하고 설치하는 전문 업체다. LG전자는 호텔과 의료시설 등의 세탁 수요가 집중된 독일에서 판매 기반을 넓힐 계획이다.

상업용 세탁가전은 반복 사용에 따른 내구성과 에너지 효율뿐 아니라 설치 이후 유지보수도 구매를 좌우한다. LG전자는 제품 성능에 매장 운영을 돕는 관리 서비스를 결합해 고객 확보에 나섰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유럽 상업용 세탁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0% 증가했다.

LG 프로페셔널은 인공지능(AI)으로 세탁물 무게를 분석해 물 사용량을 조절하고 건조 조건을 최적화한다. 고속 탈수로 세탁물에 남은 수분을 줄여 건조 시간을 단축한다. 드럼의 불균형을 감지해 자동으로 보정하는 기능은 진동과 부품 마모를 줄여 유지보수 부담을 낮춘다.

유럽 고객을 대상으로 한 영업 활동도 확대했다. LG전자는 지난 23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막한 세탁 전문 박람회 ‘엑스포 디테르고 인터내셔널 2026’에 참가했다.

전시장에서는 최대 30㎏ 용량의 상업용 세탁가전과 물·전용 세제로 울이나 실크 의류를 관리하는 제품을 선보였다. 세탁물 종류와 매장 규모에 맞춰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현지 기업 고객들과 공급 협력을 논의했다.


지난 23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막한 유럽 최대 규모 세탁 전문 박람회 ‘엑스포 디테르고 인터내셔널 2026(EXPO Detergo International 2026)’에서 LG전자 직원이 고효율 대용량 상업용 세탁가전과 차별화된 세탁 솔루션을 설명하고 있다. /LG전자

매장 관리 서비스 ‘런드리 크루’도 소개했다. 관리자는 기기를 원격으로 제어하고 오류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체 운영 시스템을 갖춘 고객에게는 LG전자 기기를 연동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해 별도 관리 솔루션 개발을 지원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삼성, 하반기 GSAT 실시… 미래사업 인재 발굴

삼성이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위한 삼성직무적성검사(GSAT)를 실시하고 우수 인재 확보에 나섰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미래 성장사업을 이끌 인재를 선발하는 동시에 정기 공채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삼성은 24~25일 이틀간 하반기 공채 지원자를 대상으로 GSAT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험에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SDS, 삼성전기, 삼성생명 등 19개 관계사가 참여했다.

삼성은 GSAT 이후 11월 면접과 건강검진 등을 거쳐 신입사원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삼성은 1957년 국내 기업 최초로 신입사원 공개채용 제도를 도입한 뒤 정기 공채를 이어오고 있다. 현재 국내 4대 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정기 공채 제도를 유지하며 청년들에게 예측 가능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中企 청년, '계속 근무' 의향 절반 미만… 임금·근무환경 영향

중기중앙회, 청년 1000명 인식조사
재직자 계속 근무 의향 46.7% 그쳐
근무 경험자 58.7%는 1년 못 채워
일자리 선택 기준 임금·근로시간 순
기업 규모보다 실질적 근로조건 중시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들이 향후 '계속 다니겠다'고 답한 비중은 절반을 못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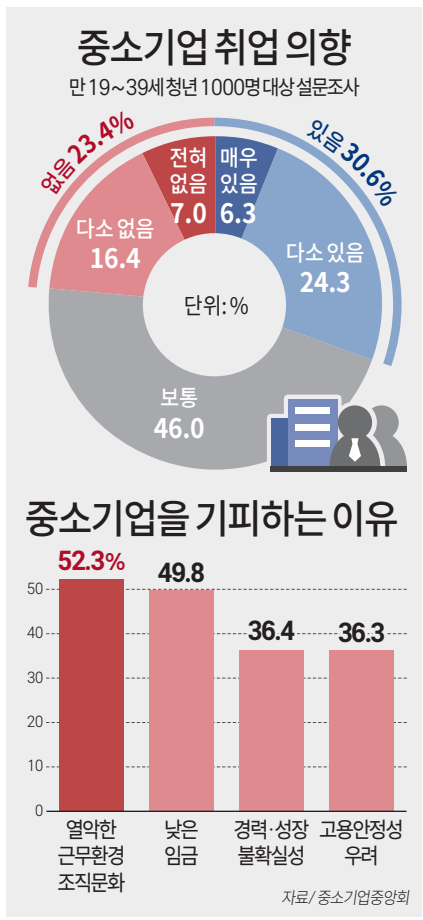
중소기업 재직 경험이 있는 청년 가운데 10명 중 6명 가량은 총 근무 기간이 1년을 채우지 못했다.

청년들의 일자리 선택 기준 1순위는 '임금 수준'이었다. 10명 중 6명은 월급(세전 기준) 250만원 이상을 희망했다.

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기업규모보다 임금이나 근무환경 등 실질적 근로조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만 19~39세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청년층 대상 중소기업 일자리 인식조사'를 실시해 25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의 '계속 근무' 의향은 46.7%(매우 있음+다소 있음)에 그쳤다. 다만 '없다'(다소 없음+전혀 없음)는 답변(14.5%)보다는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보통'도 38.8%로 적지 않았다.



향후 '중소기업 취업(재취업) 의향'에 대해선 '보통'이 46%로 가장 높은 가운데 '있음'(30.6%)이 '없음'(23.4%)보다 다소 높았다.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로는 '열악한 근무환경·조직문화'(52.3%)가 가장 높았다. 이외에도 '낮은 임금'(49.8%), '경력·성장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36.4%), '고용안정성에 대한 우려'(36.3%)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런 가운데 과거 중소기업 근무 경험이 있는 청년 191명 가운데 58.7%는 중소기업 총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매우 짧았다. 퇴사 사유로는 ▲낮은 임금 수준(41.4%) ▲열악한 근무환경(37.2%) ▲과도한 업무·장시간 근로(37.2%) 등이 주로 꼽혔다.

일자리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는 '임금 수준'(64.7%)이 가장 높았고 '근로시간'(51.9%), '고용안정성'(50.9%) 순이었다. 또 청년층의 56.5%가 기업규모보다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취업 환경은 매우 우울했다.

올해 취업·채용 기회가 지난해보다 '감소했다'는 응답은 46.6%로, '확대됐다'(7%)보다 39.6%p나 높았다. 내년 취업·채용 기회에 대해서도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40.3%로 '확대될 것'(9.4%)이란 답변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청년층이 고용시장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신입채용 시 직무·실무경험 요구'(52.0%)가 가장 높았으며, '경력직 중심의 수시채용 확대'(48.7%)가 뒤를 이었다.

이런 가운데 청년층의 55.3%는 임금·복지·직무 등 조건이 맞는다면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취업을 고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을 고려할 때 중요한 조건으로는 '주거 지원'(55.2%)이 가장 높았으며 '수도권 대비 경쟁력 있는 임금'(47.5%), '교통·통근 지원'(43.9%) 순이었다.

취업을 고려할 수 있는 지역으로는 ▲비수도권 중소도시(39.8%) ▲광역시(34.2%) ▲조건이 맞으면 지역 무관(21%) 순이었다.

중기중앙회 양옥석 인력정책본부장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의 임금·복지 격차를 완화하고 근무환경과 조직문화를 개선해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HD현대
미국 첨단 조선소 신설
해외 생산거점 확대 가속

HD현대가 미국에 첨단 조선소를 새로 짓는 등 국가별 시장 여건에 따라 신규 건설과 기존 시설 임차·인수를 병행하며 해외 생산거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HD현대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휴스턴에서 현지 건설·엔지니어링 기업 키윗과 조선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 합작법인 명칭은 'HD키윗조선'이다.

양사는 지난 7월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미국 내 선박 공동 건조와 선박용 블록·모듈 생산을 논의해 왔다. HD현대의 선박 건조·조선소 운영 역량과 키윗의 시설 건설 경험을 결합해 현지 생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美 키윗과 조선 합작법인 설립
2029년 첨단 조선소 가동 목표
인도 신설·동남아 기존 시설 활용

신규 조선소는 2027년 착공해 2029년 가동하는 것이 목표다. 노후 조선소를 인수하는 대신 산업 부지에 새로 건설하며 부지는 복수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다.

조선소에는 HD현대의 미래조선소(FOS) 모델과 디지털 트윈, 자동화 생산시스템, 로봇 용접 등을 적용한다. 전 공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해 생산성·품질·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가동 후 현지 고용 인력은 약 3000명으로 예상되며 현지 공급망 강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HD키윗조선은 미 해군 군수지원함과 상선 분야의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미국 내 다른 조선소에 선박 블록·모듈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승혁 기자 sh95@

소상공인대회서 안승배·송경덕 대표 '산업훈장'

부산 벡스코서 이틀간 행사 개최
우수 소상공인 153개사 제품 선봬
정부포상 등 유공자 147점 시상

'2026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신영주유소 안승배 대표가 은탑산업훈장을, 산하식당 송경덕 대표가 동탑산업훈장을 각각 수상했다. 스킨블루 권혁환 대표와 삼영이엔지 김영흥 대표에게는 산업포장이 돌아갔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 23~24일 이틀간 부산 벡스코(BEXCO)에서 '2026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가 열렸다.

소상공인대회는 민생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위상과 중요성을 알리고 소상공인이 당당한 경제주체로서 성장·도약할 수 있도록 응원하며, 그 성과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2006년부터 개최해 왔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오른쪽 2번째)이 23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벡스코(BEXCO)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회식에서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중기부

올해로 21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소상공인이 만드는, 더 큰 대한민국'을 주제로 ▲우수 소상공인 제품 전시·판매전 ▲업종별 우수 기술·기능 체험전 ▲부산 소상공인 민생·혁신 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첫 날 개막식에선 산업훈장 2점 등 정부포상 21점, 장·차관급 표창 126점 등 총 147점에 대한 유공포상이 주어졌다.

우수 제품 전시·판매전에는 전국의 우수 소상공인 153개사가 참여해 식품·생활용품·공예품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관람객들은 제품을 직접 보고, 맛보고, 만져 보며 구매할 수 있어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기회가 마련됐다.

업종별 기술·기능 체험전에는 메이크업미용사회, 문신사중앙회, 조리기능장협회, 애견협회, 플로리스트협회, 드론산업연합회, 제과기능장협회 등 7개 업종별 단체가 참여했다.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의 우수한 기술과 기능을 알렸다.

이 밖에도 '부산 소상공인 민생·혁신 포럼', '소상공인 대상 노무·법률 교육',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데이'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됐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811만 소상공인은 민생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뿌리"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현장을 지켜온 소상공인이 당당한 경제주체로서 경쟁력을 높이고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현대리바트
주거환경 개선사업 참여
현대건설과 맞춤형 인테리어 협력

현대리바트가 현대건설이 추진하는 '더뉴하우스' 사업의 공식 인테리어 파트너로 참여한다.

현대리바트는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 갤러리에서 현대건설과 '더뉴하우스 공용부·세대 토탈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더뉴하우스는 현대건설이 기존 아파트의 외관과 조경, 커뮤니티 시설, 첨단 주거 시스템 등 공용부를 신축 단지 수준으로 개선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전면 철거 후 새로 짓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과 달리 입주민이 거주 중인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현대리바트는 더뉴하우스 사업 추진 단지의 세대 타입과 입주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맞춤형 리모델링 옵션을 마련하고, 희망 세대에는 주방·거실·욕실·수납 등 주거 공간 전반의 설계부터 시공, 사후관리(A/S)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승호 기자

MBK·영풍, 패소에도 고려아연 압박 지속

8300억 주주대표소송 청구 전부 기각
금융·펀드 투자 의혹 제기에 회사 반박

MBK파트너스(MBK)와 영풍이 고려아연을 둘러싼 8300억원대 주주대표소송에서 패소한 뒤에도 추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소송과 여론전을 통한 경영권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와 주주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2일 MBK·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약 8300억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고려아연 측은 이번 판결을 두고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한 이사진의 경영 판단이 인정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MBK·영풍 측은 판결 이후에도 고려아연의 금융 투자와 펀드 투자 거래 등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서로 다른 시점에 이뤄진 개별 거래의 금액과 자금 흐름을 임의로 연결한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회사의 여유 자금을 활용한 금융 투자는 재무적 투자 목적이며, 펀드의 구체적인 투자처 선정과 집행은 운용사(GP)가 주도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개별 거래의 사실관계와 의사결정 과정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일부 거래 내역만으로 자금 흐름에 특정 의도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양성운 기자 ysw@

삼양그룹 창립 102주년 맞아 혁신 주문
김윤 회장, 사업 고도화·재무 안정 강조

김윤 삼양그룹 회장이 창립 102주년을 맞아 글로벌·스페셜티 중심의 사업 고도화와 인공지능(AI) 전환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

김윤 회장은 지난 23일 창립 102주년 기념사에서 "102년의 빛나는 역사지만,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담보해 주지는 않는다"며 "그룹의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와 원유 파동, K자형 경기 양극화에 AI 격차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시대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치열한 노력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로는 글로벌·스페셜티 중심의 사업 고도화와 안정적인 현금흐름 중심 경영, AI 전환을 제시했다. 불확실성이 높은 경영환경에서 사업 경쟁력과 재무 안정성을 높이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회장은 "올해 일본 향료·향장 전문기업인 'Soda Aromatic' 인수, 삼양엔씨켐의 고부가 포토레지스트 소재 공급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스페셜티 기업으로서 한층 성장했다"며 "그룹 자체 AI 플랫폼 'SAMI 2.0'을 구축해 일하는 방식에서도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28
AI INNOVATION
풀스택 AI·데이터·연계플랫폼 초월기업
Leading AX Platform
온프레미스 & 클라우드 하이브리드형 시장 점유율 1등 기업
ARAG
Graph RAG
LLM 모델
최적화 및 튜닝
LLM/MLOps
멀티
에이전틱빌더
MCP/A2A
Document AI
LLaMON
AX통합플랫폼
VLM OCR
Voice
디지털집현전 AI
민원상담 AI
복지AX
복지상담·안내
ESB
MCP
Gateway
APIG
Gateway
MESIM AX
AI연계플래폼
시장 점유율 1위
AI연계개발
장애 Agent
망/SAP
연계
Dashboard
Observability
Monitoring
자율주행
교통
철도
항공
드론
도시
산단
건설
KLEVER
디지털트윈
휴먼플랫폼
레이더검지
AI영상검지
디지털휴먼
플랫폼
METABUILD
본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2 2사옥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4
교통자율주행 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08 | www.metabuild.co.kr
T 02.598.3327 | F 02.598.3329 | Email support@metabuild.co.kr

3954만 계정 유출에도… 티빙, 신규 앱 설치 '역대 최대'

지난달 신규 앱 설치 81만4483건
전월比 43.8%↑, 두 달만에 2.4배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 신청 영향
신규 이용자·유료구독으로 이어져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티빙 사무실. /뉴시스

3954만개 계정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이 역설적으로 신규 앱 설치 시장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설치 건수는 두 달 연속 증가하며 시장 1위 자리를 되찾았다. 다만 피해 보상 신청에 따른 일시적 수요가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어 실제 이용자 확대와는 구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티빙의 지난 9월 신규 앱 설치 건수는 81만4483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월 56만6538건보다 43.8% 증가한 수치다. 지난 7월 34만409건까지 감소했던 설치 건수는 8월부터 반등하며 두 달 만에 약 2.4배로 늘었다.

신규 설치 순위도 7월 6위에서 8월 4위로 올라선 데 이어 9월에는 1위를 탈환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오히려 앱 설치가 급증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흐름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9월 티빙에서 활성 계정 2206만개와 비활성 계정 1737만개, 테스트 계정 11만개 등 총 3954만개 계정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다만 중복 계정이 포함돼 실제 피해 인원과는 차이가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설치 증가의 배경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 신청을 주목하고 있다. 티빙은 지난 9월 7일부터 피해 회원을 대상으로 보상 신청을 받았으며 탈퇴 회원도 보상을 받으려면 재가입해야 하는 구조다. 보상 신청 기간은 이달 30일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기존 이용자가 보상 내용을 확인하거나 신청하기 위해 앱을 재설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규 설치 건수는 늘었지만 실제 신규 이용자 확보나 유료 구독 증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보상 신청 목적의 설치 비중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쟁 앱의 설치 감소도 순위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7~8월 신규 설치 1위를 차지했던 숏드라마 앱 드라마웨이브는 9월 67만5674건으로 2위에 내려앉았다. 넷쇼트는 63만2059건으로 3위, 드라마박스는 49만6551건으로 4위를 기록했다. 쿠팡플레이와 넷플릭스는 각각 39만6344건, 27만5289건에 그쳤다.

관건은 설치 증가가 실제 이용자 확대와 유료 구독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OTT 시장에서 신규 설치는 이용자 확보의 초기 지표일 뿐 지속적인 콘텐츠 소비나 구독 유지율을 의미하지 않는다. 특히 보상 신청을 위한 일회성 유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면 설치 증가가 실적 개선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

티빙은 보안 신뢰 회복에도 나섰다. 클라우드 보안 체계와 접근권한 관리를 강화하고 2030년까지 정보보호 투자를 직전 5년 대비 4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결국 개인정보 유출 논란 속에서 기록한 역대 최대 설치 실적이 일시적 반등인지, 실질적인 이용자 회복의 출발점인지는 향후 이용자 잔존율과 유료 구독 지표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K-콘텐츠 영토 확장… IP 주권 확보는 과제

넷플릭스 韓 진출 10주년
국내 제작사 80곳과 200편 이상 제작
제작비 지원 대신 IP 넘기는 조건 우려

넷플릭스가 한국에 진출한 지 10년 만에 국내 콘텐츠 산업의 제작 환경과 글로벌 유통 구조를 바꿔놓았다. 한국 작품의 세계 시장 진출이 확대되면서 제작 기술과 인력의 경쟁력이 높아졌고, 콘텐츠 흥행 효과는 외식과 출판 등 연관 산업으로 확산됐다. 다만 글로벌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는 만큼 국내 제작사의 수익 배분 구조와 지식재산권(IP) 확보는 과제로 남았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 23일 한국 서비스 10주년을 맞아 국내 콘텐츠 산업과의 협업 성과를 담은 '넷플릭스와 한국의 10년'을 공개했다.

넷플릭스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제작사 80곳 이상과 협업해 한국 작품 200편 이상을 제작하거나 공동 제작했다. 이 과정에서 출연진과 제작진 2만5000명 이상, 보조출연자와 일일 고용 인력 7만명 이상 등 총 9만5000명 이상이 제작에 참여했다. 촬영도 전국 100개 이상의 도시와 마을에서 진행됐다.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도 높아졌다. 전 세계 넷플릭스 회원의 약 80%가 한국 콘텐츠를 시청한 경험이 있으며, 2021년 글로벌 톱10 집계가 시작된 이후 순위에 진입한 한국 작품은 200편을 넘어섰다.

제작 현장에서는 고명암비(HDR)와 시각특수효과(VFX) 등 고도화된 제작 기술의 활용이 확대됐다. 글로벌 공개를 전제로 영상과 음향 품질을 관리하는 제작 방식이 자리 잡으면서 국내 제작 인력의 기술 역량도 강화됐다는 평가다.

신인 창작자의 진입 기회도 늘었다. 최근 3년간 공개된 한국 오리지널 작품 가운데 3편 중 1편 이상은 신인 감독이나 작가의 작품으로 집계됐다. 넷플릭스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작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6500명 이상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콘텐츠 흥행 효과는 영상 산업 밖에서도 나타났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 공개 이후 5주간 출연 식당의 식당당 예약·대기 등록 건수는 공개 이전 5주보다 약 303% 증가했다. 방송에 출연한 우정욱 셰프의 2019년 출간 요리책도 방송 이후 20일간 판매량이 직전 20일 대비 227배 늘었다.

이는 콘텐츠 소비가 실제 식당 방문과 도서 구매로 이어지면서 연관 산업의 매출 확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작품의 글로벌 흥행이 국내 관광과 지역 상권 활성화로 연결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그러나 넷플릭스 중심의 성장 구조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글로벌 유통망과 제작비 확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작사가 흥행 성과에 따른 추가 수익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특히 제작비를 지원받는 대신 IP를 플랫폼에 넘기는 계약 구조에서는 작품이 세계적으로 흥행하더라도 제작사의 장기적인 수익 창출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콘텐츠 제작 역량은 높아졌지만 수익과 권리까지 국내 산업에 축적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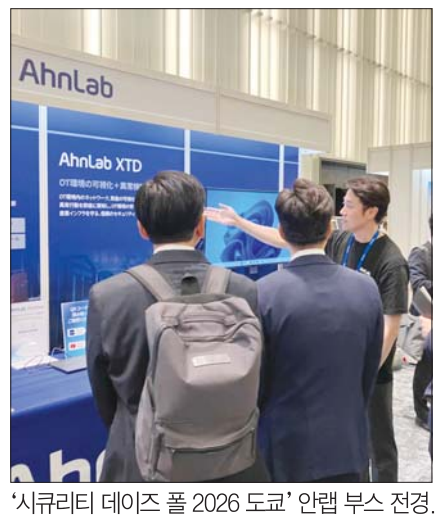
결국 넷플릭스의 한국 진출 10년은 K콘텐츠의 세계화와 산업 생태계 확장이라는 성과를 남겼다. 앞으로는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제작사가 IP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한국 콘텐츠 산업의 지속 성장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최빛나 기자

안랩, 日 산업현장 보안 시장 공략 박차

'시큐리티 데이즈 폴 2026 도쿄' 참가
IT·OT 결합 CPS 보안 역량 소개

안랩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도쿄에서 열린 '시큐리티 데이즈 폴 2026 도쿄'에 참가해 운영기술(OT) 보안 제품을 소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큐리티 데이즈는 매년 봄과 가을에 열리는 일본 사이버 보안 전시회로, 최신 사이버 위협 동향과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다.

안랩은 이번 행사에서 정보기술(IT)과 OT가 결합된 환경을 지키는 사이버물리시스템(CPS) 보안 역량을 소개했다.



'시큐리티 데이즈 폴 2026 도쿄' 안랩 부스 전경. /안랩

전시에서는 OT 네트워크 보안 제품인 '안랩 XTD'와 OT 전용 단말 보안 제품 '안랩 EPS'를 선보였다. 안랩 XTD는 공장 내부망에 연결된 설비 현황을 파악하고, 내부망 안에서 퍼지거나 사무용 전산망을 통해 들어오는 위협을 탐지·대응하는 제품이다. 안랩은 생산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랜섬웨어 대응과 설비 보호를 위한 악성코드 탐지 기능을 강조했다.

안랩 EPS는 산업제어시스템, 판매시점관리(POS) 단말, 키오스크,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특정 용도로 쓰이는 장비에 설치하는 제품이다. 설비에 주는 부담을 줄이도록 가볍게 설계했고, 제조사 보안 업데이트가 끝난 옛 운영체제도 지원해 교체가 어려운 노후 설비에도 적용할 수 있다.

발표 세션에서는 안랩 일본법인의 크로카와 마사오미 매니저가 'AI 시대에 고도화되는 CPS 보안의 최적 해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가동 중단 없는 운영이 중요한 산업현장의 보안 방안을 다뤘다. /김보민 기자 kbm@

KT, 음악으로 고객과 만나다… '보야지 페스티벌' 성료

경기도 성남시 분당중앙공원서 열려

KT가 고객 일상과 밀접한 문화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 경험 제고에 나섰다.

KT는 대표 고객 문화축제 '2026 KT 보야지 페스티벌'을 성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4일 진행된 행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중앙공원에서 열렸다. 올해 10회째를 맞아 음악 페스티벌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브랜드와 상품·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고객 접점을 확대했다. 행사명도 'KT 보야지 투 자라섬'에서 'KT 보야지 페스티벌'로 바꿨다.


2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중앙공원에서 열린 'KT 보야지 페스티벌'에서 고객들이 행사를 즐기고 있다. /KT

이날 행사에는 god, 크러쉬, 로이킴, 헤이즈, HYNN, 컨파인드화이트, 앨리스신드롬이 출연했다. 세대를 아우르는 아티스트 라인업을 통해 가족과 연인, 친구 등 다양한 고객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구성했다.

KT는 KT 보야지 페스티벌을 통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문화 혜택을 제공하고, 오프라인에서 고객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기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조민선 기자 msjo@

LG U+ '유독', 생활혜택에 전자책 구독 결합

도서·매거진팩 6종 선봬

LG유플러스가 커피, 쇼핑 등 생활 혜택과 전자책 서비스를 결합한 구독 상품을 선보인다.

LG유플러스는 구독 플랫폼 '유독'에서 도서·매거진팩 6종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전자책(e-Book)과 디지털 매거진 등 디지털 기반의 정보 콘텐츠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시간, 비용 대비 효용을 중시하는 콘텐츠 소비 트렌드 '라이프 ROI'에 주목했다. 여러 구독 서비스를 각각 찾아 가입하고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혜택을 결합한 것이다.

이번에 출시한 패키지에는 교보문고의 e북 구독 서비스 '샘' 또는 HBR·DBR 등이 포함된 2400여종의 디지털 매거진을 제공하는 '모아진'의 혜택이 담겼다. 교보문고 샘 무제한 1개월 이용권과 모아진 국내외 잡지 무제한 1개월 이용권에 메가MGC커피, 올리브영 등 일상 혜택 조합을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생활 혜택은 메가MGC 아메리카노(5잔)을 제공하거나 CGV 1+1 예매권과 메가MGC커피 아메리카노(2잔), 올리브영·다이소(2000원)과 메가MGC커피(1잔) 중 선택할 수 있다. 구독료는 월 9900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LG유플러스 구독 플랫폼 '유독'에서 확인하면 된다. /조민선 기자

미장 향하는 개미들… 국내 증시 반등, 기업 실적에 달렸다

美 주식 순매수 지난달보다 5배 ⬆
투자자예탁금 약 88.7조로 줄어
AI 수익성·주주환원에 관심 커져



지지부진한 수익률에 지친 동학개미(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떠나고 있다. /ChatGPT로 생성한 관련 이미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손절(손실을 보고 매각)하고 애플 샀는데 잘한 걸까요?" "잘하신 겁니다. 미장(미국 증시)으로 옮기는 것이 정답입니다."

지난 23일 애플 주주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글들이 속속 올라왔다. 이날 국내 증시에서 SK하이닉스는 -28.10% 하락한 6만8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반면 뉴욕 증시에서 애플은 4.42% 반등했다.

지지부진한 수익률에 지친 동학개미(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떠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쌀 때 사겠다'며 받아내던 개인의 대기 자금과 '빚투'(빚내서 투자) 자금이 동시에 줄어드는 가운데 미국 증시로 향하는 돈은 오히려 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국내외 주요 기업의 실적과 주주환원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한다.

◆"롤러코스피에 질렸다"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88조684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4일 기록한 139조6947억원보다 51조105억원(36.5%) 감소했다. 9월 말 104조6644억원과 비교해도 15조9802억원 줄었다.

이달 들어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지난 13일 100조982억원이던 예탁금은 14일 97조4280억원으로 내려가 100조원을 밑돌았다. 이후 21일 89조6343억원으로 90조원 아래로 떨어졌고, 22일에는 전날보다 9502억원 더 감소했다.

투자자예탁금은 투자자가 증권사 계좌에 맡긴 돈 가운데 아직 주식 매수 등에 사용하지 않은 자금이다. 증시로 자금이 새로 들어오거나 보유 주식을 매도하면 늘고, 주식을 매수하거나 계좌 밖으로 돈을 인출하면 줄어든다. 따라서 예탁금 감소액을 그대로 증시 이탈 규모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증권가에서는 최근 대기 자금 유입 흐름과 매수 주체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 매수 대기자금 역할을 하는 고객예탁금의 유입 속도가 코스피 흐름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며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열기가 식었다고 진단했다.

차입을 통한 주식 매수 잔고도 줄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9월 말 33조3901억원에서 지난 22일 30조3632억원으로 3조268억원 감소했다. 이달 12일 34조2886억원과 비교하면 3조9254억원 줄어든 규모다. 다만 22일에는 전날보다 922억원 늘어 최근 감소 흐름에 변화가 나타났다. 다만 잔고 감소에는 투자자의 자발적인 상환과 반대매매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를 모두 강제 청산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개미 심리 회복, 실적과 주주환원·AI에 달려

개인투자자 이모(34)씨는 보유 중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식을 팔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애플을 살지 고민하고 있다. 이씨는 "이제는 서킷브레이커에도 익숙해질 정도로 코스피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미국 시장에서 거래하는 게 나을 듯하다"고 말했다.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미국 주식으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순매수결제금액은 이달 1일부터 23일까지 약 49억58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약 10억128만달러보다 5배 가까이 늘었다. 월간 기준으로는 지난 1월 약 50억299만달러 이후 9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다.

시장은 외국인 빈자리를 메울 매수 주체가 절실하다. 개미들을 다시 불러들일 유인책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낮아진 주가와 기업 이익에 답이 있다고 말한다. KB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내년 예상 실적 기준 주가수익비율(PER)이 각각 3.3배와 2.7배 수준까지 낮아졌다며 실적과 주가의 괴리에 주목했다. 유안타증권도 내년 코스피 예상 범위를 6000~1만으로 제시하면서 기업의 이익 전망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코스피 하락의 배경으로 기업의 기초체력 훼손보다 외국인 매도 물량을 소화할 매수 주체의 부재를 지목했다. 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이러한 수급 공백을 일부 메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주 예정된 SK하이닉스(28일)와 삼성전자(29일)의 실적 발표에서는 업황 전망과 함께 추가 주주환원책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있다.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한 미국 빅테크의 실적도 관건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AI 성장성과 함께 투자 성과와 지속성이 확인되면 신용·수익성 우려를 완화하고 증시 반등에 힘을 보탤 수 있다고 분석했다.

걸림돌도 있다. 고유가에 따른 물가 부담과 미국의 추가 긴축 가능성은 투자심리에 부담이다. 박기량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추세적인 반등을 위해 유가 안정과 AI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 실질 현금흐름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주요 기업의 실적이 AI 투자에 대한 의구심을 낮추고 주주환원이 매수 기반을 보완할 수 있을지가 이번 주 증시의 주요 확인 지점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AI발 증시 충격에 재계 시총 1100조 급감

SK그룹 시총 30% ⬇… 낙폭 가장 커
HD현대·삼성·한화그룹도 타격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10조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미국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붐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AI 붐이 3년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들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이다. FT는 규제정보업체 레그레이어 자료를 인용해 올해 들어 최소 47건의 대형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지연됐거나 철회됐거나 승인이 막혔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달 투자은행 번스타인도 미국에서 계획된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중 약 35%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FT는 자체 조사한 결과 올해 미 전역에서 1000곳 넘는 지역사회가 AI 인프라 구축에 대한 모라토리엄(일시 중단)이나 다른 제한 조치를 도입하려고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AI) 버블 우려에 가장 큰 수혜를 보던 SK하이닉스는 10월 들어 시가총액이 365조원 증발했다.

SK하이닉스뿐 아니라 AI발 우려에서 코스피가 추락하면서 10대 그룹 주가도 휘청이고 있다. 이달에만 시총이 1100조원 넘게 증발했다.

25일 한국거래소와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국내 10대 그룹의 시가총액은 약 3371조441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기준 약 4472조5308억원과 비교하면 약 1101조원 줄어든 것이다.

코스피 지수가 이달 들어 18.8% 급락한 영향으로, 10대 그룹 모두 시가총액이 줄었다.

가장 많이 준 곳은 SK그룹이다. SK그룹 시가총액은 지난달 말 1563조원에서 지난 24일 1093조원으로 30.1% 급감했다. 그룹 내 시가총액 비중 1, 2위인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의 주가가 인공지능(AI) 밸류체인 수익성 우려에 급락한 영향이다. 이달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의 주가는 각각 28.1%, 32.0% 떨어졌고, 시가총액은 각각 365조원, 48조원 감소했다.

HD현대그룹의 시가총액은 지난달 말 약 128조원에서 지난 23일 95조원으로 25.6% 줄어 감소율이 두 번째로 컸다. 그룹 내 상장사 8개 중 5개가 조선주로 분류되는데, 최근 조선주 주가가 업황 피크아웃(정점 통과) 우려에 극심한 부진을 겪은 결과로 보인다.

삼성그룹의 시가총액은 2161조원에서 1636조원으로 24.3% 감소, 세 번째로 큰 감소율을 나타냈다. 반도체주 부진으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1570조원에서 1260조원으로 19.6% 줄어든 영향이 컸다.

조선·방산 등 수출 기업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한화그룹은 시가총액이 약 120조원에서 97조원으로 19.3% 줄어 네 번째로 감소율이 높았다. 한화엔진 시가총액은 약 4조10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이달 34.2% 줄었고, 한화오션은 약 24조원에서 17조원으로 30% 감소했다. 그룹 내 대장주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시가총액은 약 52조원에서 41조원으로 21.4% 줄었다.

이외에 LG그룹의 시가총액은 190조원에서 180조원으로 5.3% 감소하는 데 그쳤다. 포스코 그룹의 시가총액은 약 540조원에서 505조원으로 6.4% 줄어 비교적 적은 감소율을 기록했다. GS그룹 시가총액은 약 19조원에서 16조원으로 이달 13% 줄었고, 신세계그룹은 약 6조원에서 5조3000억원으로 12% 감소했다. 현대차그룹 시가총액은 약 215조원에서 182조원으로 이달 15%, 롯데그룹은 약 17조원에서 16조원으로 4.3% 줄었다. /신하은 기자 godhe@

금감원

AI로 민원 38만건 분석 불법사금융 조직 추적

금감원은 25일 피해 신고·제보·민원과 불법금융광고 정보 등 약 38만건을 활용한 인공지능(AI) 기반 분석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별 사건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 범행 구조와 배후 조직을 파악하고 수사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불법사금융 조직은 점조직으로 활동하는 데다 피해자들의 신고 시기와 경로도 달라 같은 조직의 범행이 별개 사건으로 다뤄지는 한계가 있었다. 금감원은 축적된 정보를 함께 분석해 개별 신고에 가려진 조직적 범행을 찾아내기로 했다.

분석체계 가동 결과, 한 조직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이어온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특히 지난 3월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던 '이실장' 조직을 다시 추적한 결과, 확인된 피해 사례가 당시 파악한 규모의 2배를 넘어섰다. 금감원은 피해자 유입 경로도 추가로 파악했으며, 확보한 단서를 경찰에 제공해 핵심 조직원 검거를 지원할 계획이다.

등록 대부업체가 불법광고와 피해 신고에 직접 연결된 사례도 드러났다. 일부 업체는 여러 피해 신고와 불법광고에 반복적으로 등장해 등록업체의 신뢰를 이용하면서 불법 사채 영업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대부업법 위반 소지가 큰 등록업체 수십 곳을 추려 피해자 면담과 현장 기동점검을 진행하고,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광고·대출·추심·영업을 나눠 맡은 분업형 조직들이 서로 연계해 활동한 정황도 추가로 살펴볼 방침이다. /허정윤 기자

금융위·금감원 주요 제재 사전조율 정례화

쇄신안 공공기관운영위 보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요 제재 건에 관해선 금융위로 넘어오기 전 사전조율을 공식·정례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조만간 이런 내용이 포함된 금감원 금융행정 쇄신방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쇄신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사 대상 검사를 완료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갈 때 주요 현안에 관해선 금융위와 공식·정례적으로 사전조율을 하게 된다.

현재도 금감원이 제재 수위를 결정할 때 필요시 금융위와 비공식적인 조율이 이뤄진다. 또 금융위 국장급이 금감원 제재심의에 참여하는 공식적인 루트도 있지만 당국 간 이견을 좁히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중요한 이슈는 사전조율하는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행 금융위·금감원의 사전조율을 공식화·정례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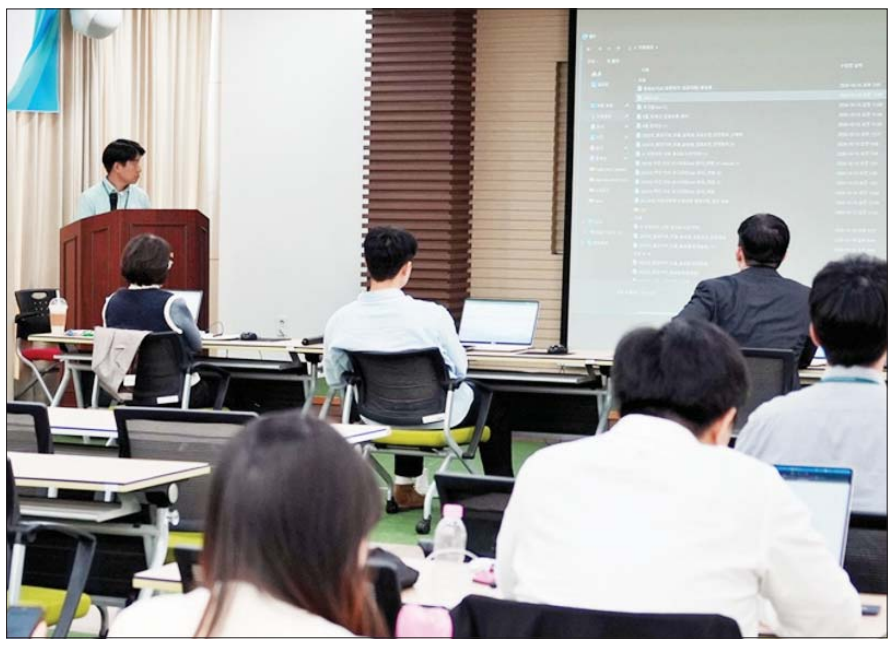
쇄신안에는 사전조율을 거쳐야 하는 대상도 함께 규정될 걸로 보인다. 가령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후 첫 거액 과징금이 부과되는 홍콩 ELS 사태처럼, 최초의 사례여서 전례가 없거나 사회적 영향이 큰 사안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사전조율을 정확히 어느 단계에서, 어떤 채널을 통해 진행할지 구체적인 사안에 관해선 향후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정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주요 현안의 제재 수위를 놓고 금융위와 금감원의 이견 노출이 잦았다. 대표적 사례가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 논의다. 지난 5월 금융위는 금감원이 애초 보내온 1조4000억원 과징금이 담긴 제재안을 금감원으로 되돌려보냈다. 공식적으로는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지만, 금감원이 애초 과도하게 높은 수준의 과징금을 정해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금융위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후 금감원은 기존 1조4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대폭 감경한 제재안을 금융위로 다시 보냈다. 해당 제재안은 현재도 금융위에서 논의 중이다. /허정윤 기자

aT, AI로 농산물 가격 예측 고도화… 업무 혁신에도 속도

농산물 가격예측 해커톤 566명 참가
본선 15개 팀 선정해 예측 정확도 경쟁
배추·무·양파 등 5개 품목 가격 분석
민간 아이디어 활용해 '농넷' 기능 강화


이달 15일 전남광주시 나주 소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본사에서 열린 '2026년 AI 프런티어 성과 공유 경진대회'.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농산물 가격예측 모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예측의 고도화를 위해 민간의 아이디어도 적극 수렴 중이다. 또 AI를 직원 현장 업무에 폭넓게 적용하기 위한 목적의, 사내 역량강화 경진대회도 개최했다.

25일 aT에 따르면 공사는 '2026년 AI 농산물 가격예측 온라인 해커톤(주어진 시간 내에 주제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공모전)'을 실시 중이다. 이는 참가자의 아이디어를 AI가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경연이다. 총 394개 팀·566명이 참가했고, 예선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 15개 팀을 지난 23일 선정했다.

aT 관계자는 이 대회 관련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AI 기술을 활용해 우수한 농산물 가격예측 모형을 발굴하고, 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 '농넷'의 가격예측 기능을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밝혔다.

참가자가 가격예측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상용 대규모언어모델(LLM)이 이를 실제 프로그램 코드로 구현한다. 이처럼 'AI 자동코딩' 방식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코딩 경험이 없어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농산물 유통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초부터 이달 중순까지 진행된 예선에서는, 외부 전문심사위원 3명이 참가팀의 제안 내용을 평가해 고득점순으로 본선 진출팀을 추렸다.

본선은 10월26일~11월8일 기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본선 진출팀은 예선에서 제안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배추, 무, 양파, 깐마늘, 건고추 등 5개 품목의 도매시장 가격을 예측하고 모형의 정확도를 겨룬다.

aT는 본선 첫날인 이달 26일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열어 대회 진행 방식 및 주요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본선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5개 팀에는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대상 1개 팀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우수상 4개 팀에 aT 사장상이다.

aT의 김창국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해커톤은 코딩 경험이 없어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AI 기술과 접목해 농산물 가격예측에 도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우수한 예측 모형을 발굴해 농넷의 가격예측 기능을 고도화하고, 농산물 유통 분야의 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aT는 지난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 본사에서 '2026년 AI 프런티어 성과공유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작 6건을 선정했다. 대회에선 직원들이 직접 개발한 AI 기반 업무자동화 사례를 공유했다.

이 대회는 지난 7~8월 운영한 'AI 프런티어' 교육과정 수료자들이 실제 업무에 AI를 적용한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한 업무자동화 모델을 공사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AI 프런티어는 aT가 올해 처음 도입한 AI 전문인력 양성 과정으로, AI·데이터 분석 역량이 우수한 직원 3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6주간 실습교육과 아이디어톤(아이디어를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발전시키는 프로그램), 전문가 코칭 등을 거쳐 데이터 분석·시각화와 업무자동화 도구를 직접 개발했다.

15일 열린 경진대회에서는 우수작 6건을 최종 선정했다. 대상은 '농산물 가격조사 결과 모니터링 시스템'이 차지했다. 이 시스템은 5개 주요 지역, 80여 개 조사 품목의 주간 가격 변동과 이상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가격조사 담당자의 데이터 점검 효율을 높이고 가격정보의 신뢰성 및 사업관리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에는 'K-푸드 수출상담 성과측정 시스템'과 '관세장벽 통합 대응 플랫폼'이 뽑혔다.

공사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AI 챔피언' 인증 취득도 지원했다. AI 챔피언은 행안부가 공공분야 직원을 대상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실무 과제 수행 수준을 평가하여 수여하는 인증이다. aT는 올해 블루등급 6명, 그린등급 1명 등 총 7명의 인증 인력을 배출했다.

김창국 직무대행은 "이번 경진대회는 직원들이 교육에서 익힌 AI 역량을 실제 업무의 문제 해결로 연결한 뜻깊은 자리다. 앞으로도 AI 기반 업무혁신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노사발전재단, 글로벌 ESG 노동규범 지원

노사협력 통한 노동·인권 대응 강조
국내기업 대상 국제규범 공유 확대

노사발전재단이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추세에 대응해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국제 노동규범 공유를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서울 서대문구 재단 본사에서 '노사상생으로 준비하는 글로벌 ESG 대응 전략'을 주제로 글로벌 ESG 세미나를 개최했다.

재단 관계자는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공급망 실사 등 글로벌 ESG 규범의 법제화가 확대되고 있다"며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의 협력업체인 국내 기업에도 ESG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역량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최근 노동권·인권·산업안전·차별·강제노동·결사의 자유·단체교섭 등 노동 관련 이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노사가 협력해 노동·인권 분야의 ESG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연우 전문위원은 '2026년 글로벌 ESG 공시 트렌드와 노사협력적 대응'을 주제로 글로벌 ESG 공시환경의 주요 변화와 노동·인권 관련 주요 쟁점을 소개했다. 또 노사협력적 관점에서 기업과 노동조합이 고려해야 할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일본국제노동재단의 아이하라 이사장은 '노사협력기반 글로벌 노동인권 실사 대응 사례'를 주제로 일본의 노동분야 지속가능경영 동향과 글로벌 공급망에서 노동조합의 역할 및 주요 사례 등을 소개했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글로벌 ESG는 이제 환경 분야를 넘어 노동과 인권을 포함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 전반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재단은 앞으로도 노사가 상호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변화하는 글로벌 노동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수도권매립지공사, 주민 초청행사 개최

드림파크 국화축제 연계해 400명 참여
시설 견학·현장 소통으로 상생협력 강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최 초청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이 드림파크 야생화단지를 둘러보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2026 드림파크 국화축제'와 연계해 주변영향지역 주민 초청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5일 공사에 따르면 초청행사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닷새간 이어졌다.

이 행사는, 그동안 수도권매립지의 안정적인 운영에 협조해 온 지역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며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인천 서구 오류동을 비롯해 왕길동, 경서동, 김포 양촌읍 등 수도권매립지 주변 영향지역의 노인회·부녀회 관계자 및 통·이장 등 주민대표 약 400명이 참석했다.

참석 주민들은 수도권매립지 홍보관, 매립지시설, 온실 등을 견학하고 주요 사업 및 운영 현황 등을 살펴봤다. 또 드림파크 국화축제 행사장을 둘러본 뒤 지역 먹거리장터에서 소통·화합의 시간도 가졌다.

조강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그동안 수도권매립지 운영에 협조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부산항 디지털 혁신 역량 세계에 알렸다

세계항만당국자회의서 체인포털 소개
주요 항만과 환적 경쟁력 강화 논의

부산항만공사(BPA)가 세계항만당국자회의에 참석해, 부산항의 디지털 혁신 역량을 소개하고 주요 항만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 22일 호주 퍼스에서 열린 '2026 세계항만당국자회의(PAR)'에 참석했다. PAR은 2015년 싱가포르해사항만청이 발족한 주요 항만당국 간 연례 협의체로, 국내에서는 부산항만공사가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이번 회의는 호주 필바라항만공사 주최로 개최됐다. 부산항을 비롯해 싱가포르항, 함부르크항, 로테르담항, 롱비치항, 바르셀로나항 등 세계 주요 20여 개의 항만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전 세계 주요 항만 간 협력과 공동 대응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과 혁신 ▲해운산업 탈탄소화 ▲불확실성 시대의 항만 시스템 강화 등 3개 주요 의제를 논의했다.


2026 세계항만당국자회의. /BPA

참석자들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항만 운영 효율화와 데이터 연계, 저탄소 전환,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 제고를 위한 각 항만의 경험과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공사의 이응혁 국제물류지원실장은 '항만커뮤니티시스템(PCS)을 통한 부산항 환적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부산항의 대표적인 디지털 혁신 사례인 통합물류정보플랫폼 '체인포털'을 소개했다.

공사는 체인포털을 통한 항만 이용자 간 실시간 정보 공유가 선박과 화물의 원활한 연계 및 터미널 간 신속한 환적 운송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부산항의 환적 운영 효율성 및 경쟁력을 높여 온 성과도 알렸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세계 주요 항만들이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부산항의 디지털 혁신 역량을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무역보험공사·신보, 감사역량 강화 맞손

AI·빅데이터 활용한 감사기법 협력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신용보증기금과 '감사전문성 제고 및 내부통제체계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중동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영향으로 최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에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 지원 역시 투명·공정을 바탕으로 한 신뢰도 제고가 요구된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양 기관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책금융 지원에 필요한 감사업무 전문성 강화 및 내부통제체계 고도화를 위해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23일 맺은 협약에서 양 기관은 ▲우수 감사사례 벤치마킹 ▲AI(인공지능)·빅데이터 등 IT 감사기법 역량 강화 ▲감사활동 전문분야 인력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무보는 지난해 12월 '2025년 한국공공기관 감사협회 감사인 대회'와 '2025년 한국감사협회 감사인 대회'에서 그간의 감사성과를 인정받았다. 공직기강·청렴윤리 최우수상 및 청렴윤리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체계 구축에 힘써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종=김연세 기자


김호연 작가의 밀리언셀러 소설이 공연으로 재탄생
뮤직드라마
불편한 편의점
Always
24 Times
예매하기
2026.4.3 - OPEN RUN
올웨이즈씨어터

“하나되는 경북, 함께 만드는 지방시대” 1000여명 한 목소리

경상북도민의 날 기념식

개도 130주년·도민의 날 30주년 ‘자랑스러운 경상북도민상’ 수여 이철우 지사 “새로운 미래 열어야”



경상북도는 지난 23일 도청 동락관에서 ‘2026 경상북도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상북도

경상북도가 개도 130주년과 도민의 날 지정 30주년을 맞아 22개 시·군 도민과 함께 새로운 지방시대를 향한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

경상북도는 지난 23일 도청 동락관에서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김희수 도의회 의장, 임종식 교육감, 22개 시·군 시장·군수 및 도의원, 기관단체장, 출향도민회 관계자와 도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경상북도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2개 시·군기와 경북도기의 입장을 시작으로 독도사랑 스포츠공연단의 축하공연, 자랑스러운 도민상 시상, 기념사 및 축사, AI 주제영상 상영, 미래 비전 퍼포먼스, 도민의 노래 합창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특히 각 시·군의 특색과 발전 방향을 담은 홍보영상 속에서 시장·군수들이 직접 시·군기를 들고 입장해 화합의 의미를 더했다.

지역 사회 발전과 봉사에 헌신해 온 도민 41명에게는 ‘자랑스러운 경상북도민상’이 수여됐다. 특별상은 정혜순 정우하이텍 대표, 나마디 조엘 진 예천군청 육상팀 선수, 이길호 경북도의사회장, 고운자 안동시자원봉사센터장, 최철영 대구대 교수, 김찬수 자연보호중앙연맹 경북도협의회장, 윤난숙 경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 신순옥 복터진집 에프앤비 대표에게 돌아갔다. 또한 본상에는 포항시 김성훈 씨 등 각 시군을 대표하는 33명이 영예를 안았다.

이어 상영된 AI 주제영상은 매소성 전투의 역사적 승리에서 출발해 경북의 호국·화랑·선비·새마을 4대 정신을 조명했다. 아울러 K-푸드산업, 통합신공항, 첨단산업 육성, 저출생 극복 등 과거의 도전이 미래로 이어지는 경북의 여정을 실감 나게 담아내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경북의 미래를 밝히다’ 퍼포먼스에서는 이철우 지사와 주요 내빈들이 경북의 미래를 상징하는 씨앗을 함께 들어 올렸으며, 대형 화면에 22개 시·군의 비전이 나무에 맺히는 장관이 연출됐다. 참석자들은 “하나되는 경북, 함께 만드는 지방시대”를 한목소리로 외치며 호명초등학교 어린이합창단과 함께 ‘도민의 노래’를 제창하며 대미를 장식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경북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가장 먼저 앞장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 온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이제는 국가 발전의 중심축을 지방으로 옮기고, 지방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책임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2개 시·군의 역량과 도민의 열정을 하나로 모아 다음 세대에 더 큰 기회와 희망을 남기고, 경북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자”고 당부했다.

/안동(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용인시, ‘통삼2 산단’ 조성계획 승인

내년 착공·2028년말 준공 목표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입주 기대



통삼2 일반산업단지 조감도.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남사읍 통삼리 산 59-1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용인 통삼2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이 산업단지는 총사업비 약 1374억원을 투입해 17만6234㎡ 규모로 조성된다. 내년 5월 착공해 2028년 12월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전체 부지 가운데 산업시설용지는 12만1344㎡이며, 나머지 공간에는 지원시설과 주차장,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이 들어선다.

입주 업종은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과 기계·장비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등이다. 시는 반도체 산업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입주를 기대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약 7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중고 장비 기업인 ㈜서플러스글로벌도 사업 영역 확대와 관련 산업 간 연계성을 고려해 입주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산업단지 내 반도체 관련 기업의 입주와 협업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용인(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포항시, 내일 ‘골목상권 활성화 포럼’ 개최

무료 참석… 주요의견은 정책 반영

포항시는 오는 27일 포항지역발전협의회 대강당에서 ‘2026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민 공감 포럼’을 개최한다. 골목형 상점가가 13곳으로 늘어난 가운데 온라인 검색을 실제 방문으로 연결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과 지원사업을 매출 증가로 이어갈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검색되는 골목, 머무는 상권, 포항다운 로컬 브랜드’를 주제로 열리는 포럼에는 골목경제 전문가와 지역 상인, 소상공인, 청년 창업자, 시민 등이 참여한다. 온라인 검색과 SNS를 활용한 방문객 유치, 걷고 머물기 좋은 골목 조성, 지역 공동 브랜드 개발 등을 다룬다.

모종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가 ‘골목상권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를 주제로 초대 연설을 하고, 김경숙 대구한의대학교 교수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이후 공동 운영과 활성화 방안을 설명한다. 이어 윤정현 영남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전략, 김주일 한동대학교 교수는 생활권 상권, 이민주 아워시선 대표는 로컬 브랜드와 재방문을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 토론에서는 상권 관계자와 소상공인 관련 기관·단체가 공동 마케팅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포럼은 상인과 소상공인, 청년 창업자 등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주요 의견은 포항시 정책 수립에 반영된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경북교육청, ‘365일 독도교육’ 확대

경북교육청은 제126주년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맞아 울릉도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온라인 학습과 학교 수업, 현장 체험을 연계한 ‘365일 독도교육’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개교 5주년을 맞은 사이버독도학교를 중심으로 학교교육과 학생 독도탐방, 독도교육원으로 이어지는 교육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2026 사이버독도학교 독도의 날 온라인 축제’를 운영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디지털 콘텐츠도 확대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월간 독도’와 교수·학습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교사 독도 자율탐방 동아리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수업자료를 개발해 공유한다. 독도 탐방 가이드북 ‘우리 독도’는 사전학습과 현장 체험, 탐방 후 교육활동을 연결하는 데 활용된다.

학생들의 현장 체험도 이어지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도내 모든 교육지원청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도탐방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1000여 명의 학생이 독도를 방문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배우고 교실에서 탐구하며 독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는 365일 독도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영양군, 건고추 출하조절시설 사업 확정

남영양농협과 100억 규모 추진

영양군과 남영양농업협동조합이 건고추 유통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100억원 규모의 출하조절시설 사업을 확정했다. 양 기관은 저장시설 확충과 계약재배 체계 정비를 통해 수매 물량을 늘리고 시장 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지역 고추 농가의 소득 안정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6년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 공모사업으로, 지난 4월 조건부 선정 이후 행정절차와 세부 실행계획을 보완한 끝에 최종 확정됐다. 영양군은 지역 대표 작물인 건고추의 유통 인프라를 확충해 주요 고추 산지로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100억원으로 국비 40억원과 지방비 30억원에 남영양농협 부담금 30억원이 더해진다. 사업 시행을 맡은 남영양농협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첨단 저온저장고를 비롯한 출하조절시설을 구축하고 건고추 수매·취급 물량을 기존 446톤에서 600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저장과 출하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면 시장 상황에 대한 대응력과 거래 교섭력을 높여 농가 수익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이 본격화하면 영양군은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지역 브랜드 마케팅을 추진한다. 남영양농협은 계약재배 농가를 조직화하고 생산 관리 기준을 표준화하는 한편 안정적인 수매와 판로 확보를 맡는다. /영양(경북)=강태우 기자 ktu3987@

지역 이모저모

전재수 시장, 스틸 대사 회동 부산-美 교류협력 방안 논의

부산시 전재수 시장은 지난 22일 오후 2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미셸 박 스틸 신임 주한미국대사를 만나 부산과 미국 간 우호 증진과 교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스틸 대사의 부임 후 첫 부산시 공식 방문이다. 전 시장은 부산 방문을 환영하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이어진 관계가 항만·물류·경제·문화 등으로 넓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틸 대사는 환대에 감사를 표하며 “지난 방문 이후 부산이 크게 달라진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앞으로 더 강화되길 바란다”는 뜻도 나눴다.

/부산=이정민 기자 metrobusan6@

하동군

‘균형성장사업’ 대통령 표창

하동군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최한 ‘2026년 균형성장사업 우수 사례’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전선 복선화로 폐선된 옛 하동역 일원을 복합 거점으로 바꾼 사업 성과를 인정받았다.

하동군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하동~횡천 간 폐철도를 활용한 군민 행복 이음길 조성사업도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수 하동군수는 “이번 수상은 옛 하동역을 청년과 주민이 함께 누리는 생활·문화·일자리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하동(경남)=이정민 기자

부산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 확대 추진

부산시의회는 김태효 기획재경위원장이 발의한 ‘부산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를 현행 130일 안에서 140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정례회 회기를 연간 60일에서 70일 이내로, 임시회 회기를 회당 15일에서 20일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시의회는 예산안과 결산,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을 심의할 시간을 더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김태효 위원장은 “충분한 심의 시간을 확보해 시민 눈높이에서 더 꼼꼼히 따지고 책임 있게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이정민 기자

전남광주교육청

진로전담교사 역량강화 연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22~23일 나주에서 AI시대 진로·진학지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중등 진로전담교사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진로심리검사와 코칭 기법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상담 역량을 높이고, 인공지능(AI) 시대의 교육환경과 2028학년도 대학입시 변화에 대응하는 진로진학지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연수를 통해 학생들에게 더욱 고도화된 진로진학지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전남광주=양수녕 기자 ysn6313@

식품기업, 먹거리 다음은 바를거리… 'K뷰티' 새 활로 모색

화장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 진입

hy 보유균주 기반 원료 B2B 사업
서영이앤티 제조·ODM 기업 투자
동원그룹 참존 인수예장자 선정



식품기업들이 각자의 강점을 활용해 뷰티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챗GPT 생성 이미지

식품기업들이 본업의 실적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 화장품 사업으로 발을 넓히고 있다. 국내 내수 시장 축소로 주요 식품사들의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에 머무는 가운데,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는 화장품을 새로운 돌파구로 삼았기 때문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요 식품기업의 영업이익률은 대상 4.5%, 오뚜기 5.5%, 농심 6.7%, 풀무원 2.5% 등 대부분 한 자릿수에 그쳤다. 해외 매출 비중이 80%에 달하는 삼양식품(영업이익률 23.8%)을 제외하면, 오뚜기(해외 비중 11.6%) 등 내수 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내수 정체에 따른 타격이 컸다.

반면 화장품 수출은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국가별 식문화와 유통 장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식품과 달리, 화장품은 아마존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과 해외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판로를 빠르게 넓히고 있는 점도 매력적인 요소다.

식품사들은 각각의 강점을 살려 다양한 방식으로 뷰티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hy'다. hy는 자사 중앙연구소가 보유한 5000여 종의 균주와 천연물 라이브러리를 바탕으로 화장품 원료 B2B 사업과 이너뷰티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피부 건강 기능성 원료인 'HY7714'를 활용한 'HY7714 코어바이오덤' 등을 개발했으며, 평택과 논산공장 설비를 통해 지난해 원료 판매량 18톤을 기록했으며, B2B 매출은 약 15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B2B 매출 목표는 200억원 이상이다.

농심과 오리온은 원료 공급과 B2B 협력에 집중하고 있다. 농심은 뷰티 브랜드 '아로셀'에 건기식 핵심 원료인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를 공급하는 협약을 맺었으며, 오리온은 자회사 오리온제주용암수의 사업목적에 화장품책임판매업을 추가했다.

신세계푸드와 하이트진로 그룹 오너 일가 회사인 서영이앤티는 직접 브랜드 육성 대신 리스크가 적은 화장품 제조·ODM(자체개발주문생산) 기업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업계의 눈길을 끄는 곳은 동원그룹이다. 동원그룹 계열사인 동원홈푸드는 최근 서울회생법원 관리하에 진행 중인 '1세대 K뷰티' 참존 매각 절차에서 조건부 인수예정자(스토킹호스 방식)로 선정됐다. 수백억원대로 알려진 이번 거래가 연내 최종 성사되면 2024년 3월 취임한 김남정 동원그룹 회장 체제의 '첫 M&A' 사례가 된다.

참존은 1984년 설립 이후 외부 OEM에 의존하지 않고 제품 개발부터 생산까지 처리 가능한 자체 연구조직과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토지·건물 등 약 120억원 규모의 부동산 자산도 갖췄다. 화장품 사업 신규 진출 시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드는 점을 감안할 때, 스토킹호스 채무 조정을 거쳐 검증된 생산 기반을 효율적으로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뷰티업계 관계자는 "동원처럼 자금력을 갖춘 기업이 인수할 경우, 참존의 생산 인프라와 추가 투자를 결합해 ODM 전문기업으로 전환하거나 브랜드 재도약을 모색하는 등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화장품 사업 진출이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는 개별 브랜드의 경쟁력이 성장을 좌우할 것"이라며 "단순한 시장 진입을 넘어 독자적인 기능성 원료 기술력과 차별화된 유통·마케팅 생태계를 구축하는 기업만이 새로운 승자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롯데, 베트남 채용 확대… 글로벌 사업 속도

하노이 소재 5개 대학 채용행사
롯데백화점 등 6개 계열사 참여



롯데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베트남 현지 주요 대학에서 '2026 롯데 글로벌 캠퍼스 리크루팅 인 베트남'을 개최했다. 22일 하노이 과학 기술대학교에서 열린 채용 설명회에서 롯데백화점 현지 직원이 주요 사업과 채용 정보를 설명하고 있다. /롯데그룹

롯데가 베트남 현지 채용 행사를 통해 글로벌 인재 확보에 나섰다. 베트남 사업 확대에 맞춰 현지 인력 채용을 늘리고, 주요 대학과의 접점을 넓혀 채용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롯데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베트남 하노이 소재 5개 대학에서 '2026 롯데 글로벌 캠퍼스 리크루팅 인 베트남'을 진행했다. 롯데백화점·롯데호텔·롯데월드·롯데이노베이트·롯데물산·대홍기획 등 베트남 진출 6개 계열사가 참여했으며, 행사 기간 3000명 이상의 취업준비생이 방문했다.

행사는 채용 상담과 일대일 모의 면접을 진행하는 홍보 부스, 그룹 및 계열사 소개를 중심으로 한 채용 설명회로 구성됐다. 각 계열사의 채용 담당자와 현직자들은 참가자들에게 직무 정보와 채용 관련 경험을 전달했다.

롯데는 베트남에서 현재 1만명 이상의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500여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는 해외 현지에서 '글로벌 잡페어'와 '글로벌 캠퍼스 리크루팅'을 진행하며 인재 확보와 채용 브랜드 강화에 나서고 있다.

베트남에 이어 인도네시아에서도 채용 행사를 열 예정이다.

롯데 관계자는 "해외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롯데의 사업 경쟁력과 성장 기회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지 인재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글로벌 인재들이 선호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채용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쿠팡, 숙박권 등 가을철 나들이 상품 할인

31일까지 기획전… 300여종 판매

쿠팡이 가을 나들이 수요를 겨냥해 테마파크와 워터파크, 단풍 여행 패키지 등 입장권 할인전에 나선다.

쿠팡은 오는 31일까지 가을철 나들이 관련 상품 300여종을 할인 판매한다고 25일 밝혔다. 테마파크 이용권부터 워터파크 입장권, 단풍 여행 패키지, 숙박권 등을 한데 모았다.

테마파크 상품으로는 에버랜드와 서울랜드, 한국민속촌 등의 이용권을 마련했다. 에버랜드 종일 이용권은 정상가보다 37% 할인한 4만5000원에 판매한다. 서울랜드 종일권과 한국민속촌 주말·공휴일 종일권은 2만4000원대에 선보인다.

온천과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상품도 포함했다. 테르메덴 풀앤스파와 아산 스파비스, 하이원 워터월드 등의 이용권을 판매한다.

단풍과 가을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여행 상품도 마련했다. 내장산 단풍 여행과 홍천 은행나무숲, 정선 억새꽃 축제 등 가을 명소를 둘러보는 패키지를 선보인다. 숙박 상품은 조식 제공과 얼리 체크인 등 혜택을 다양화해 선택 폭을 넓혔다.



이번 기획전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며, 행사 기간 매일 새로운 상품을 할인가에 선보인다.

쿠팡 관계자는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본격적인 가을 나들이철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쿠팡에서 편리하게 만나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이랜드뮤지엄
위대한 농구선수 75인전

이랜드뮤지엄이 대구 이월드 83타워 76·77층에서 농구 관련 소장품을 활용한 전시 '위대한 농구선수 75인전'을 지난 24일 성공적으로 오픈했다.

이번 전시는 판교와 부산에 이은 이랜드뮤지엄의 세 번째 농구 관련 전시다. 'NBA 75주년 기념 팀(NBA 75th Anniversary Team)' 선정 선수를 포함해 농구 역사를 빛낸 전설의 아카이브가 공개된다.

전시는 ▲더 고트(THE GOAT) ▲더 저지스(THE JERSEYS) ▲올스타(ALL-STAR) ▲더 빅맨(THE BIG MEN) ▲더 어워즈(THE AWARDS) ▲블랙 맘바(BLACK MAMBA) 등 총 6개 존으로 구성되며, 총 100점의 소장품을 만나볼 수 있다.

/신원선 기자

롯데免, 주류·미식 등 체험형 마케팅 강화

고객 접점 확대… 면세쇼핑 혜택 연계

롯데면세점이 프리미엄 주류 브랜드와 협업해 최상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마케팅을 강화한다. 주류 시음과 미식 경험을 결합한 프라이빗 행사를 통해 VIP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고 면세 쇼핑 혜택을 연계한다는 전략이다.

롯데면세점은 글로벌 럭셔리 주류 기업 모엣 헤네시와 함께 서울과 부산에서 내국인 최상위 회원 대상 초청 행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프랑스 칸에서 열린 면세 박람회 '2026 TFWA 월드'에서 체결한 양사 간 전략적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3일 서울 더그랜드롯데 서울 35층 피에르가니에르 바에서 '글렌모렌지 마스터클래스'를 열었다. 최상위 회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렌모렌지 21년, 알터스 25년·30년, 시그넷 리저브 등 싱글 몰트 위스키 4종을 소개했다. 글렌모렌지의 위스키 크리에이션 디렉터인 빌 럼스덴 박사가 브랜드 철학과 위스키 제조 과정을 설명했으며, 프렌치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피에르가니에르 셰프가 위스키와 어울리는 음식을 선보였다.

오는 29일에는 부산에서 '프레스티지 샴페인 클래스'를 진행한다. 내국인 최상위 회원 20명을 대상으로 돔페리뇽, 아르망디브리냑, 뵈브 클리코 등 샴페인 5종을 선보인다. 각 브랜드의 특징과 빈티지에 따른 풍미를 비교하는 시음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신원선 기자

CU, 도움벨 서비스 이용건수 3000건 돌파

편의점 CU가 이동약자의 매장 이용을 돕기 위해 도입한 QR 기반 도움벨 서비스가 5개월도 안 돼 누적 이용 3000건을 넘어섰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별도 앱 설치 없이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월별 이용 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지난 6월 도입한 '이동약자 도움벨 QR 서비스'의 누적 이용 횟수가 약 3000건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매장 출입문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직원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고객이 요청하면 점포 내 전용 단말기와 POS에 알림이 전달된다. 직원은 출입을 돕거나 휠체어 진입이 어려운 매장에서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대신 전달하는 등 상황에 맞춰 지원한다.

월별 이용 건수는 도입 첫 달인 6월 약 200회에서 7월 400회, 8월 700회, 9월 800회, 10월 900회로 증가했다. 누적 이용 횟수가 10회를 넘은 점포는 14곳이며, 20회 이상 이용한 점포도 7곳에 달했다. CU으뜸1호점과 CU김천한마음점은 각각 누적 47회로 가장 많은 이용 실적을 기록했다.

한편 BGF리테일은 QR 도움벨 외에도 장애인의 편의점 이용과 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는 소셜벤처 투아트와 협력해 시각보조 앱 '설리번 플러스'에 상품명과 가격, 할인 행사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CU 모드'를 운영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장애인 편의점 사업도 추진 중이다. 제주와 평창, 부산, 성남, 구리, 대전 등에서 장애인 편의점 6곳을 운영하며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한미약품, 비만약 판 바꾼다… 감량 넘어 '근육 보존' 승부수

잔트루타이드, 국제 일반명 획득
美 임상 2상… 내년 상반기 종료
에페, 이달 일부 의료기관서 처방



'뉴 한미' /한미그룹.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의 패러다임이 단순히 '체중을 얼마나 줄이느냐'에서 '얼마나 건강하게 빼느냐'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기존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치료제가 우수한 감량 효과에도 불구하고 근육 손실과 요요 현상이라는 한계를 드러내면서, '체중 감소의 질'을 높이는 차세대 치료제 개발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시장 변화의 중심에서 한미약품의 차세대 비만치료 삼중작용제(LA-GLP/GIP/GCG) 후보물질 'HM15275'가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국제 일반명(INN)을 공식 부여받으며 글로벌 베스트 인 클래스(Best-in-Class) 도약을 향한 핵심 이정표를 세웠다.

25일 국내 제약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최근 WHO가 HM15275의 국제 일반명(INN)을 '잔트루타이드'로 최종 확정했다. INN은 전 세계 의약품 성분을 표준화해 혼동을 방지하고 연구 및 규제 기관 간 원활한 정보 공유를 위해 제정되는 명칭이다. 특히 글로벌 신약 자산으로서의 공식적인 가치와 인지도를 확보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잔트루타이드'라는 명칭 자체에 한미의 개발 철학이 집약되어 있다. 최고와 균형을 상징하는 접두사 '잔'과 삼중 수용체 작용제를 뜻하는 접요사 '트루', 펩타이드 계열을 나타내는 어미 '타이드'를 결합해 '최상의 균형을 지향하는 차세대 삼중작용제'라는 전략적 정체성을 담았다.

잔트루타이드는GLP-1(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 GIP(위 억제 펩타이드), GCG(글루카곤) 등 세 가지 수용체의 작용을 한미의 인크레틴 연구 노하우로 최적화해 정밀 설계한 펩타이드 신약이다. 위절제 수술을 능가하는 25% 이상의 강력한 체중 감량 효과를 목표로 한다.

특히 주목받는 대목은 '근 손실 최소화'다. 기존 GLP-1 단일제나 이중작용제는 체중 감량 과정에서 전체 감량 수치의 20~40%가 제지방(근육 등) 감소로 이어지는 치명적 약점이 있었다. 반면 잔트루타이드는 신체 대사를 최적화하는 기전을 통해 체지방 중심의 감량을 유도하고 근육을 보존함으로써 고도비만 환자 및 대사질환 동반 환자에게 한 차원 높은 치료 옵션을 제시한다.

현재 잔트루타이드는 미국에서 비만 및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다. 오는 2027년 상반기 임상 2상 종료가 예상되며, 임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잔트루타이드가 한미약품 비만 신약 프로젝트 'H.O.P(Hanmi Obesity Pipeline)'의 중장기 핵심 축이라면, 선두주자인 '에페(성분명: 에페글레나타이드)'는 빠른 상용화로 시장 진입의 물꼬를 튼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한 에페는 이달 일부 의료기관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처방이 개시된다.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 허가까지 전 과정을 국내 기술로 완주한 '국산 비만약 1호'다. 한미의 독자 플랫폼 '랩스커버리'를 적용해 위장관계 부작용을 개선했으며, 한국인 대상 임상 3상에서 뛰어난 체중 감량 효과를 입증했다.

특히 첫 달 약값이 12만 원대로 책정되어 20~30만 원대를 형성 중인 위고비, 마운자로 등 글로벌 빅파마 제품 대비 확실한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 평택 바이오플랜트 자체 생산을 통해 외산 약물의 고질적인 수급 불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초기 시장 점유율 확대에 강력한 무기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한미약품은 후속 파이프라인으로 비만 치료 전주기 포트폴리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개념 비만치료제 'LA-UCN2(HM17321)', 세계 최초 펩타이드 기반 마이오스타틴 억제제 'LA-MSTN(HM500197)' 등을 확보했다.

HM500197의 경우, 펩타이드' 제형으로 설계되어 GLP-1 계열과의 병용 및 복합제 개발이 용이하다는 차별점을 갖췄다. 글로벌 빅파마들이 개발 중인 마이오스타틴 억제 후보물질들이 분자량이 큰 항체(Fc-fusion) 기반이라 인크레틴 계열과의 복합제 개발이 까다롭고 안전성 우려가 있다.

한미약품 미래성장부문장 최인영 부사장은 "잔트루타이드의 국제 일반명 공식 등재는 한미의 유망 R&D 자산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을 확보하고, 글로벌 신약 자산으로서의 미래 가치와 인지도를 높여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SK바사, AI로 백신 생산 효율 높인다

AI 기반 '수율 가이드 Agent' 적용
연구개발 등 전사적 AI 전환 확대



지난 23일 열린 '2026 AI-바이오 신약허브 글로벌 서밋 인천'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이용 AX 기획팀장이 발표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생산 현장에 인공지능(AI) 기반 공정 최적화 시스템을 전격 도입하며 제조 수율과 품질 경쟁력 제고에 나섰다. 백신 공정 현장에서 검증된 AI 성공 사례를 연구개발(R&D)과 임상·허가, 품질 관리 등 전사 영역으로 확대해 글로벌 백신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생산 효율성과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23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열린 'AI-바이오 신약허브 글로벌 서밋 인천'에 참가해 AI 활용 현황과 향후 전사적 인공지능 전환(AX)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AI와 바이오 기술의 융합을 통한 신약개발 혁신과 국내외 기업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바이오 산업 주요 기업으로 실제 생산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적용한 경험을 공유하고 생태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SK바이오사이언스 이용 AX기획팀장은 'AI, 현장의 허들을 넘기까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안동 L HOUSE의 독감백신 생산 공정에 적용된 AI 기반 '수율 가이드 Agent' 사례를 공개했다. 백신은 세포 배양과 정제 등 공정 조건에 따라 생산량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특히 독감백신은 매년 변하는 바이러스주에 맞춰 최적의 생산 데이터를 찾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AI 시스템은 축적된 생산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를 파악하고 공정 조건을 최적화한다. AI가 분석과 권고 역할을 수행하면 담당자가 데이터에 기반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공정의 변동성을 줄이고 생산 효율성을 대폭 끌어올린다. /이청하 기자

한올바이오파마, 바토클리맙 중국 허가

첫 글로벌 상용화 결실

대웅제약 특수관계 기업 한올바이오파마가 글로벌 파트너사와 함께 개발 중인 차세대 면역항암·자가면역 신약 파이프라인에서 첫 번째 글로벌 상용화 결실을 맺었다. 중화권 시장을 타깃으로 한 신약 허가가 완료됨에 따라 단계별 마일스톤과 판매 로열티 유입이 본격화되는 등 실질적인 성과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중국 파트너사 하버바이오메드가 FcRn(태아 Fc 수용체) 억제 항체 신약 '바토클리맙'에 대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최종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한올바이오파마가 독자 개발해 글로벌 파트너사에 기술 이전한 바토클리맙과 아이메로프루바트 등 파이프라인 전체를 통틀어 나온 첫 번째 신약 승인이다.

이번 품목허가는 항-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Anti-AChR) 양성인 성인 전신 중증근무력증 환자에 쓰이는 170mg(1mL/바이알) 용량의 피하주사제(SC) 제형에 대해 이뤄졌다.

허가의 바탕이 된 중국 내 27개 기관 임상 3상 시험에서 바토클리맙은 약효와 빠른 발현 속도, 안전성을 동시에 입증했다. 1차 평가지표 측정 결과, 바토클리맙 투여군의 58.2%가 첫 번째 치료 주기 동안 일상생활 수행능력 점수가 기준치 대비 3점 이상 개선되어 4주 이상 유지됐다. 이는 위약군(31.3%) 대비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로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했다. 특히 바토클리맙 투여군에서는 약물 투여 단 2주 차부터 빠른 증상 개선 반응이 확인됐다.

주요 2차 평가지표에서도 위약군 대비 확연한 임상적 우위를 나타냈다. 정량적 중증 근무력증 점수가 지속해서 개선된 환자 비율(64.2% 대 40.6%)과 증상이 거의 사라진 최소 증상발현상태 도달 비율(25.4% 대 4.7%) 등 전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갈랐다. /이청하 기자

동화약품, 약학 분야 학술 공로자 선정

약학공로상에 손의동 명예교수


지난 22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대한약학회 창립 8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김형식 대한약학회장(왼쪽부터), 손의동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명예교수, 유준하 동화약품 대표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동화약품

동화약품이 국내 약학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퇴행성 뇌질환의 새로운 치료 길을 연 연구자들의 학술 공로를 조명했다.

동화약품은 부채표 가송재단과 대한약학회가 지난 22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제8회 윤광열 약학공로상'에 손의동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명예교수를, '제19회 윤광열 약학상'에 조동규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를 각각 선정해 시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약학공로상을 수상한 손의동 명예교수는 대한약학회장, 대한약학회장,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장 등을 역임하며 약학 6년제 평가 체계와 국가시험 제도를 정립했다. 국내 약학 교육의 틀을 다졌고 세계약학연맹 서울총회 개최 준비, 한·중·일 학술 교류 등을 이끌며 한국 약학의 글로벌 입지를 확립했다. /이청하 기자

풀무원, 구조 동물에 사료 2톤 기부

먹거리 지원·보호시설 환경 개선

풀무원이 구조 동물의 먹거리 지원과 보호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

풀무원은 펫푸드 브랜드 풀무원아미오 제품 약 2톤을 동물보호단체에 기부하고 임직원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5일 밝혔다.

풀무원은 지난 23일 사단법인 길동무와 나누미천사가 운영하는 쉼터에 고양이·강아지 사료와 간식을 전달했다. 기부 품목은 고양이용 '건강담은 식단 캣 체중케어', 강아지용 '건강담은 식단 독 피부&모질 케어', 고양이 퓨레 '자연담은 퓨레 닭가슴살과 당근' 등이다.

풀무원 임직원들은 쉼터 운영진 및 봉사자들과 함께 후원 물품을 옮기고 시설 공간을 정비하는 등 구조 동물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참여했다. 동물 구조 활동을 이어온 구독자 37만명 규모의 유튜버 '으으냥'도 이번 봉사활동에 동참했다.

풀무원아미오는 유기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먹거리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충남 당진시의 유기견 쉼터 '동공당'에 강아지 사료 420kg을 기부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약국 입점 상품
체내 흡수율 높은
활성화 비타민 D3
BORYUNG
보령컨슈머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보령
비타민D
4000IU 츄어블
VITAMIN D 4000IU CHEWABLE
•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VITAMIN D
비타민D
100 μg / 일
1,000 mg x 60정(60 g)
오렌지맛
NAVER
보령 비타민D 4000IU 츄어블
지금바로 네이버 검색해보세요



기정원, 'KB 굿잡 부산 잡 페스티벌' 참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26일 부산 해운대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 '2026 KB굿잡 부산 잡(JOB) 페스티벌'에 참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KB국민은행, 부산광역시, 고용노동부가 공동 주최하는 대규모 채용 행사로, 공공기관과 경제단체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한다. /기정원



대한상의 여성기업위, '사랑의 친구들 바자' 동참

대한상의 여성기업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 정동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2026 사랑의 친구들 바자'에 총 8000만원 상당의 후원금과 물품을 기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왼쪽부터)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정기옥 대한상의 여성기업위원회 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한상의



위메이드커넥트, '프리프 유니버스' 대회 성료

위메이드맥스는 위메이드커넥트가 서비스하는 글로벌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프리프 유니버스'의 세계대회 'FWC 2026' 그랜드 파이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대회에는 현장 관람객 약 7000명이 방문했으며 유튜브와 트위치 등 온라인 생중계에도 약 5만명이 참여했다. /위메이드맥스



코웨이, '굿디자인 어워드' 우수 디자인 선정

25일 코웨이에 따르면 비렉스 R시리즈 R7 스트레칭 모션베드(사진) 외에도 비렉스 페블체어2, 비렉스 M시리즈 안마 매트리스가 '2026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우수디자인(GD) 상품에 선정되며 슬립·힐링케어 브랜드 비렉스(BEREX)의 디자인 우수성을 입증했다. /코웨이



우리금융,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

우리금융미래재단은 동작구 내 취약계층 100가구의 친환경 보일러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후원금 3000만원을 동작구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왼쪽부터)장광익 우리금융미래재단 사무국장, 류삼영 동작구청 구청장, 조남범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금융

하나금융, 인천 어르신 10곳 찾아 따뜻한 주거환경 선물

그룹 임직원·가족 50여명 참여
노후 전열기구·멀티탭 집중 점검
도배, 장판교체, 집안 청소 등도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4일 인천 남동구 일대에서 그룹 임직원과 가족 50여 명이 참여한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어르신 가정을 사전에 점검하고, 가구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임직원과 가족들은 인천 지역 어르신 10가구를 직접 방문해 방한·단열 개선, 조명 및 전기용품 점검·교체, 주거환경 정비, 겨울용 이불 지원 등의 활동을 펼쳤다.



하나금융그룹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들이 취약계층 어르신 가정에 방문해 노후화된 벽지를 교체하는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특히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노후 전열기구와 멀티탭을 집중 점검하고, 교체가 필요한 물품은 새 제품으로 교체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 어르신 가정에서는 도배와 장판 교체, 집 안 청소 등 주거환경 개선 작업도 진행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기 전 어르신들의 주거환경을 점검하고 가구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롯데百, LoL 체험형 팝업스토어 열어

'라이엇 게임즈 뮤직 앤 월즈'
음악 콘텐츠, 월드 챔피언십 주제

롯데백화점이 게임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체험형 팝업스토어를 열고 팬덤 소비 수요 공략에 나선다. 게임 굿즈 판매를 넘어 음악과 e스포츠 콘텐츠를 결합해 오프라인 쇼핑 공간의 경험 요소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11월 1일까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 1층 아트리움에서 '라이엇 게임즈 뮤직 앤 월즈 2026'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세계적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가상 아티스트와 음악 콘텐츠, e스포츠 대회인 월드 챔피언십을 주제로 꾸몄다.

팝업스토어에서는 LoL 관련 상품 170여종을 선보인다. K/DA와 HEARTSTEEL 등 가상 아티스트 관련 상품을 비롯해 월드 챔피언십 굿즈와 신상품 100여종을 마련했다. 10월 29일부터는 '리프트 바운드 월드 챔피언 T1 플레이어 번들'(10만원)과 '2026 월드 챔피언십 세트'(12만원) 등 팝업 선출시 상품 18종도 판매한다.

e스포츠 팬을 위한 상품과 전시도 마련했다. T1 소속 선수 '페이커' 이상혁의 공식 기념우표를 판매하며, 우표첩과 나만의 우표 등 총 5종을 선보인다. 우표는 10월 23일 출시됐으며 전국 우체국과 라이엇 스토어 팝업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다.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한 롯데월드몰 1층 아트리움에서 진행 중인 '라이엇 게임즈 뮤직 앤 월즈 2026' 팝업스토어 전경. /롯데쇼핑

현장에는 2026 월드 챔피언십에 진출한 LCK 4개 팀을 응원하는 공간과 페이커의 주요 업적을 소개하는 전시를 조성했다. 약 8m 높이의 트로피 에어벌룬 포토존도 운영한다. 방문객은 스탬프 투어와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뒤 추첨 이벤트를 통해 키캡과 포토카드 등 관련 상품을 받을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조현민, 한국치안산업진흥협회장 첫 행보

〈한진 사장〉

국제치안산업대전 참석

㈜한진 조현민 사장이 한국치안산업진흥협회 초대 회장으로서 '2026 국제치안산업대전(KPEX)'에 참석하며 첫 공식 행보에 본격 나섰다.

25일 한진에 따르면 조현민 사장은 지난 21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한국치안산업진흥협회 총회를 주재한 뒤 국제치안산업대전 현장을 찾아 첨단 치안 기술과 국내 산업 현황을 둘러보고 주요 기관 및 업계 관계자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회에서 조 사장은 "협회가 공공 치안과 민간 혁신기술을 잇는 든든한 가교이자 미래 치안산업 도약의 구심점이 돼야 한다"며 한국 치안산업 발전을 위한 치안산업진흥협회의 방향성과 적극적인 역할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이는 지난 9월 창립 총회 취임사에서 강조한 기조의 연장선이다. 당시 조 사장은 "국민이 누리는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치안 현장의 역량과 첨단기술·산업의 뒷받침이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치안기술의 연구·개발부터 전문인력 양성, 제도적 지원,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아우르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대한민국 치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진 조현민 사장(가운데)이 '2026 국제치안산업대전(KPEX)'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한진

조 사장은 총회 이후 국제치안산업대전 개막식에 참가한 뒤 현장 주요 부스를 돌아보며 우리나라 치안산업의 현주소와 미래 지향점 등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승호 기자 bada@

오늘부터 인문주간… AI 시대 속 질문

전국 18개 기관서 190여개 프로그램
강연, 전시·공연, 체험 등 진행

인공지능(AI)이 빠르게 답을 내놓는 시대, 무엇을 묻고 어떻게 답을 받아들일지 살펴보는 인문학 행사가 전국에서 열린다.

교육부와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는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전국 18개 인문학 관련 기관에서 '제21회 인문 주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주제는 'AI 시대, 질문하는 인문학'이다. 전국에서 190여 개 프로그램을 마련해 강연과 전시·공연, 체험, 토크콘서트, 현장 답사 등을 진행한다.

서울에서는 아시아의 역사와 문화부터 AI 시대의 인간과 인문학까지 다양한 주제로 행사가 열린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는 아시아의 역사·교류·외교를 살펴보는 문화 축제와 국내 저자 학술대회를 마련한다. 동국대는 'AI와 인간, 인문학으로 성찰하다'를, 한국외대는 'AI 시대, 질문하는 인문학-보고, 그리고, 새기며 다시 묻다!'를 주제로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과 인문학을 살펴본다.

경북 경주시 동국대 WISE캠퍼스는 분황사와 경주읍성, 최부자 고택 등을 둘러보는 근현대 탐방과 서예 공연을 진행한다. 충남 아산시 선문대는 옹기 만들기 체험과 지역 역사·문화 현장 답사를 운영하고, 이순신의 '난중일기' 독후감 및 유적 답사기 공모전 시상식도 연다.

이 밖에 경기 의정부·부천·연천, 부산·창원, 경북 영주, 전북 무주·군산, 전남 광주·여수, 강원 강릉·춘천 등에서도 지역 특색을 살린 인문학 강연과 체험 행사가 이어진다.

26일 오후 2시 국회에서는 인문 주간 선포식과 기념 세미나가 열린다. 대학 인문교육의 변화와 국가 인문 정책 방향을 주제로 대담과 학술 발표, 종합 토론을 진행한다. /김수정 기자 kcrystal@

HK이노엔, 전 세계에 K-숙취관리 확산

'컨디션 크루' 2기 발대식

HK이노엔이 전 세계 Z세대를 겨냥해 즐겁고 안전하게 즐기는 K술자리 필수 관리에 나섰다.

HK이노엔은 지난 22일 경기 판교 본사에서 숙취해소제 브랜드 컨디션의 대학생 서포터즈 '컨디션 C.R.E.W(크루)' 2기 발대식을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9월 모집을 시작해 최종 선발된 50명은 이번 발대식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특히 남미, 유럽, 아시아 등 다양한 국적의 글로벌 참가자들도 함께해 국내외 대학생들의 또래 문화와 결합한 '한국식 숙취 습관'을 확산한다. 오는 2027년 3월까지 짧은 영상(숏폼) 중심의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축제, 모임 등 대학교 행사 현장에서 건강한 음주 습관을 돕는 대규모 샘플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인 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부단장 박상철 △개발협력지원국장 김규형 ◇과장급△기획총괄과장 이헌우 △인사과장 김령석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총괄과장 최영민 △국무조정실장 비서관 김경태 △통일안보정책팀장 황일용 △국정과제지원과장 조성래 △뉴미디어총괄행정관 김혜경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전북지원과장 조혜정

부 음 ▲이종수씨 별세, 권정희(수원시 안전국장)씨 모친상 =24일, 수원시 연화장장례식장 203호, 발인 26일. 031-218-6560

▲민병휴(전 대한가정의학회장)씨 별세, 민정준(전남대의대 교수)·순령·상준(금호고속 상무) 부친상, 기홍석(기홍석안과원장) 장인상, 이명진·송성애(조선대병원 수간호사) 시부상 = 25일, 광주 천지장례식장, 발인 27일. 062-527-1000



에스앤마일즈가 선택받는 이유

철강·금속 산업 전문성
산업 특성을 이해한 전문 노하우로
최적의 출장·행사 서비스 제공.

해외 네트워크
전 세계 파트너 네트워크를 통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기업 맞춤 일정 설계
목적과 예산에 맞춘 최적의 일정과
프로그램 설계

24시간 지원 서비스
현지 긴급 지원 및 상담 서비스로
안심 비즈니스 지원

현지 운영 지원
숙련된 현지 운영팀이 행사 전 과정
원활하게 관리

기업 맞춤 인센티브 투어

목적과 예산에 최적화된 맞춤형 프로그램



기업 골프 행사
기업의 목적에 맞는 골프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고객사 사은 행사
고객 관계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
로 기획 및 운영을 지원합니다.



해외 워크숍·세미나
항공·호텔·회의·관광까지 원스톱으로
완벽하게 관리합니다.

기획 → 항공 → 호텔 → 현지 운영 → 귀국
ONE STOP 서비스!

2026 글로벌 산업 전시회

항공 + 호텔 + 여행자보험 패키지로 편리하게!



01 아시아 대표 금속가공 전시회
MWCS 2026 CIIF 동시 개최

MWCS METALWORKING AND CNC MACHINE TOOL SHOW
CIIF

상하이(Shanghai) · 중국
2026. 10.12(월)~10.16(금)
National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 (Shanghai) 국가전람중심 (NECC)
1인 129만원~
4박 5일 기준 / 조건에 따라 변동



02 일본 최대 공작기계 전문 전시회
JIMTOF 2026

JIMTOF 2026
도쿄(Tokyo) · 일본
2026. 10.26(월)~10.31(토)
Tokyo Big Sight (도쿄 빅 사이트)
전시장 : 전관 (East & West Halls)
1인 155만원~
5박 6일 기준 / 조건에 따라 변동



03 세계 밸브 산업의 중심
VALVE WORLD EXPO 2026

VALVE WORLD EXPO DÜSSELDORF
뒤셀도르프(Düsseldorf) · 독일
2026. 12.01(화)~12.03(목)
Messe Düsseldorf
HALL 1 · HALL 3
1인 215만원~
3박 4일 기준 / 조건에 따라 변동

상기 요금은 기준 출발일 및 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항공·호텔 예약 상황에 따라 실제 견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S&Miles 기업전문 여행사
기업 출장 · 인센티브 · MICE S&Miles와 상담하세요!
맞춤 기획서 · 견적 무료 컨설팅!
02-3487-2800
smkang@snmiles.com
www.snmiles.com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120
에스앤마일즈 여행사

아파트 가계약 파기 시, 반환일까 배상일까



김 대 희 변호사의
슬기로운 법 생활


/ChatGPT

아파트 매매를 할 때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는데, 그와 관련된 분쟁도 종종 발생한다. 가계약금을 걸어 둔 것만으로 본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지, 가계약 단계에서 파기하는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주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위약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등이다.

가계약이라는 법률행위는 법률에 규정된 것은 아니고, 부동산 매매 실무에서 발생한 것으로 법원이 법리를 정립해 왔다. 법원은 가계약 또한 결국 계약의 일종이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로 보고, 사안에 따라 가계약의 내용과 효력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모든 가계약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리는 없고, 사안별로 가계약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가계약이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계약만으로는 본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가계약을 체결했고, 가계약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매도인에게 본계약을 체결하거나 본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법률상 강제할 수 없고, 본계약을 체결해야 비로소 본계약상의 법률상 의무의 구속을 받게 된다. 다만, 가계약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본계약상의 중요한 내용 ▲매매목적물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실상 본계약의 체결로 보아 본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여지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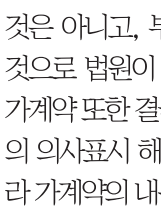
만약 가계약이라는 명칭에도 법률상으로는 본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해약금 해제는 가계약금을 기준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본계약상의 계약금이 기준이 된다. 즉, 가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했는데, 계약금을 1000만원으로 한 본계약의 성립이 인정된다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이미 지급한 300만원 외에 7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계약금 해제가 가능해진다. 매도인은 가계약금 300만원의 배액인 600만 원이 아니라, 1300만원을 반환해야 계약금 해제가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가계약 단계에서 일방이 가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계약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가계약금을 종결시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보고 있다. 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체로 문자에 간단한 내용 정도만 주고받으면서 가계약금을 지급하는데, 그 내용에 "가계약 파기시 가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배상" 이런 취지의 문구가 없는 이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자유롭게 가계약을 파기하고, 가계약금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반면, 위와 같은 혹은 비슷한 문구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받은 가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는 방법으로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경우 지급한 가계약금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위약금을 지급해 가계약이 종료된다.

가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가계약이 본계약인지 아니면 가계약인지, 가계약이라면 가계약상의 위약금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명확히 한 후 가계약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것이 가계약상의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가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또한 이런 내용을 명확히 해 가계약을 중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바른

인공지능 국감



기자 수첩
안 승 진
〈금융부〉

올해 국정감사의 핵심 안건은 단연 인공지능(AI)이었다. AI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경쟁력 제고 방안이 논의됐고,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른 대규모 AI 위협까지 도마에 올랐다. AI가 시각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활용하는 의원도 여럿 등장했다.

언뜻 보면 AI의 활용이 국감장의 긍정적으로 풍경을 바꾼 모습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몇몇 의원들은 인공지능이 내놓은 자료나 견해를 무책임하게 인용하며 국감의 수준을 떨어뜨렸다. 출처나 신뢰성이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 자료가 인용됐고, AI가 질문자의 의도에 맞춰 내놓은 답변들이 국민의 여론인 것처럼 피감기관의 관계자들에게 제시됐다.

국정감사의 기능은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의 견제 및 비판이다. 행정부가 세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검토하며, 정부의 각 부처가 주요 현안에 대해 적절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한다. 그만큼 정무적 판단과 표현의 선택이 중요한 국감장이지만, AI가 내놓은 답변들은 "AI는 이렇게 말하더라"라며 책임 없이 던져졌다. 심지어 검증된 데이터가 생명인 정무위·재경위 국감에서도 출처를 AI로 제시한 자료가 등판했다.

정치인의 언어에는 책임이 따른다. AI가 내놓은 결과물은 참고 자료는 될 수 있지만, 검증의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AI를 빌려 지적을 던지고, 명백한 오류나 드러났을 때 "AI가 내놓은 의견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정치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AI 국감'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라며 구글의 AI비서인 '제미나이'의 답변을 인용했는데, 야당은 법사위·과기부·정무위 등 주요 부처 국감에서 "제미나이가 이렇게 말하더라"라며 정부를 겨냥한 비판에 AI를 등판시켰다. 국정 책임자부터 여·야 의원에 이르기까지, AI를 '책임질 필요가 없는 정치적 발언'을 위한 핑계막이로 활용하는 모양새가 됐다.

AI시대가 빠르게 본격화하면서 AI의 역할도 확대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책임감은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책설계에서는 단 1%의 오차도 큰 나비효과를 불러온다. 정확한 수치와 데이터가 핵심인 금융·경제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 숫자 하나에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영역에서도 책임소재를 외주하는 지금의 행태는 중단돼야만 한다.

/asj1231@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26일 (음 9월 16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매사가 기로에 서서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60년생** 양심에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72년생** 귀인은 동쪽에 있습니다. **84년생** 올바르지 못한 생각은 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9년생 자녀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61년생** 너무 급하게 나아가지는 마세요. **73년생** 지병이 있다면 꾸준한 치료를 요합니다. **85년생** 스스로 일을 처리해도 결과가 매우 좋습니다.

50년생 복운을 만나 평온해 지겠습니다. **62년생** 각별한 주위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74년생** 몸관리에 유념하세요. **86년생** 전화위복이란 이럴 때 쓰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51년생 외출을 삼가하세요. **63년생** 허황되게 갖지 못할 물건에 마음을 두게 됩니다. **75년생** 소박한 행복을 꿈꾼다면 매우 길하겠습니다. **87년생** 이직운이 없으니 현 상황에 만족하는 게 좋습니다.

52년생 재정문제가 당분간 어려워집니다. **64년생** 좋은 결심이 있으리니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76년생** 사소한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88년생** 윗사람한테 안 좋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53년생 주위 사람들과 거리감이 생기게 됩니다. **65년생** 여행은 기분전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77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89년생** 나아가야 할 길을 잃고 방황할 수 있겠습니다.

54년생 외출보다는 집에 있음이 좋으리라 봅니다. **66년생** 가까운 친구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78년생** 불편한 잠자리를 갖게 됩니다. **90년생** 자신의 의지를 확고히 할 때입니다.

55년생 안 좋은 일을 겪게 됩니다. **67년생** 친구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79년생** 건강운이 길하지 못합니다. **91년생** 분명한 판단이 서지 않는 일은 추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6년생 의욕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습니다. **68년생**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됩니다. **80년생** 유흥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될 것입니다. **92년생** 공로를 취하하는 자리라 의지가 솟구칩니다.

57년생 좋지 않은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9년생** 상하가 서로 화합하여 우의를 돈독히 합니다. **81년생** 꿈 같은 시기를 만났습니다. **93년생** 사랑은 생각도 못했던 곳에서 다가옵니다.

58년생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70년생** 여행을 떠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82년생** 마음을 여니 모든 사람이 나의 벗이 됩니다. **94년생** 모든 일이 원만히 풀려 나갑니다.

59년생 자신의 허물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71년생** 부모님의 도움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깁니다. **83년생** 사원들의 단합이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95년생** 컨디션이 좋지 못한 하루입니다.



김상회의 四季

오디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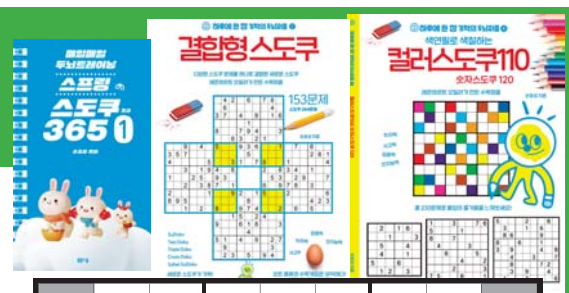
영화 〈오디세이〉에 엄청난 관객이 몰리면서 인기를 끌었다.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가 바탕인 이 작품의 중심에는 오디세우스라는 남자가 있다. 그는 트로이 전쟁을 치른 후에, 바다를 건너고, 온갖 유혹과 위험을 지나 마침내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으로 향한다. 영화는 상상하기 힘든 험한 일을 겪어도 주인공이 끝내 자신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여준다. 오디세우스에게 귀향은 단순히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아니다.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되찾는 여정이기도 하다. 낯설고 위험한 수많은 섬과 그곳에서 만나는 기괴한 사람들, 신들의 분노와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를 지나면서 그는 끊임없이 시험받는다. 영화에 깊이 빠져드는 이유는 거친 풍랑에 배가 부서지고 가족 같은 동료를 잃으면서도 끝내 귀향을 포기하지 않는 주인공의 모습에, 자기의 삶을 투영하는 것이다.

스크린 속 인생에서는 오디세우스가 주인공이지만, 현실의 인생이라는 영화에서는 관객 자신이 주인공이다. 어떤 사람은 가족의 중병이 모험이고, 어떤 사람은 취업이 고난이다. 누군가는 결혼 자체가 풍랑 몰아치는 항해인 것이고, 누군가는 돈 문제가 신의 시험이다.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회사를 그만두는 것도 모두 자기의 오디세이라는 무대가 되는 것이다. 오디세이의 주인공은 순풍을 만나기도 하고 거센 바람에 배가 난파하기도 한다. 괴물을 만나거나 거인을 만나서 많은 병사를 잃기도 한다. 삶도 그런 여정과 다르지 않다. 때로는 달콤하지만 수시로 쓰디쓴 열매를 던져주는 게 인생이다. 때로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다. 어려움 또한 영원히 지속하지는 않으며 지금 건너고 있는 거센 풍랑을 언젠가는 좋은 추억으로 되돌아보는 시기가 올 것이다. 누구나 인생이라는 험한 바다를 건너고 있는 모험의 주인공들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 한 힘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3		1				5		
			4			2		
	2							4
6		8					7	
4								9
	1					4		6
8							2	
		3			6			
		9				6		1

	7	3	1	9		6		5
				8				
9					7			
3								
	9						5	
								7
			8					4
				1				
8		1		6	2	7	9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1	3	6	4	5	8	9	7	2
8	4	7	6	2	9	3	5	1
5	2	9	3	7	1	4	6	8
6	8	4	2	9	3	5	1	7
9	5	1	8	6	7	2	3	4
4	7	3	1	5	4	6	8	9
2	9	8	5	4	6	7	2	3
7	6	5	9	8	2	1	4	3
3	1	2	7	3	5	8	9	6

3	9	7	2	6	4	1	5	8
2	6	8	5	1	9	7	3	4
6	4	9	3	2	8	5	1	7
4	3	2	7	9	6	8	4	1	5
7	1	5	4	8	3	9	2	6
8	5	1	6	4	2	3	7	9
9	6	8	5	3	7	2	4	1
5	1	4	2	9	6	7	8	3
2	7	3	1	9	4	6	8	5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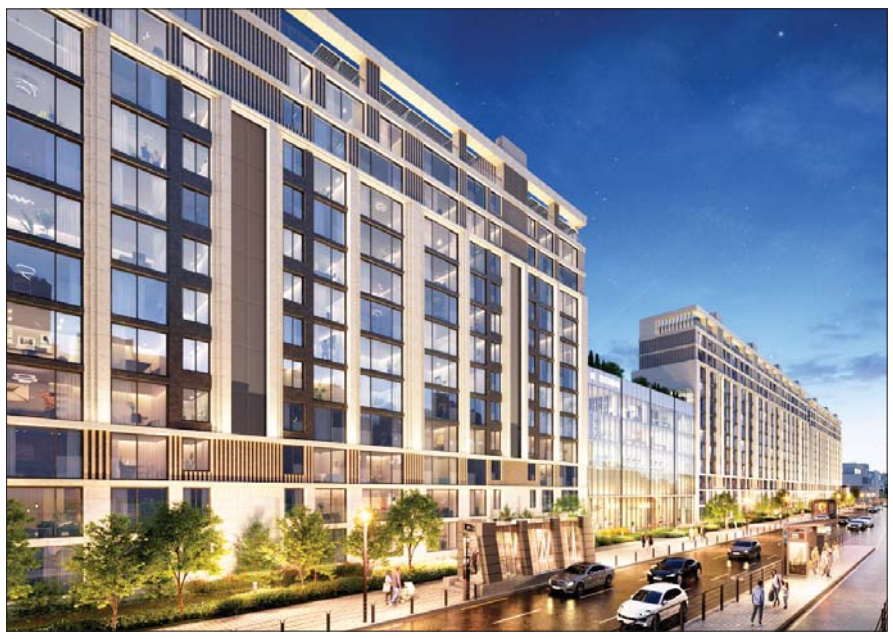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20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24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서울 아파트 리모델링 두 갈래… 삼성 '고급화', 포스코 '증축'

주요 단지서 나란히 시공권 확보
사업 방식 달라도 조합원 지지 높아

삼성, 반포푸르지오 기존 가구 유지
특화 평면·호텔식 욕실 등 새 단장
포스코, 이수신동아 136가구 추가
일반분양 물량 확보·주차 공간 확충


반포푸르지오 리모델링 투시도(외관). /삼성물산

서울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에서 기존 가구 수를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식과 증축을 통해 일반분양 물량을 확보하는 방식이 나란히 추진된다.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가 최근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시공권을 확보하면서 서로 다른 사업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24일 각각 서울 서초구 '반포푸르지오'와 동작구 '이수신동아4단지' 리모델링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두 사업의 공사비는 각각 1250억원과 5264억원이다.

두 사업의 가장 큰 차이는 증축을 통한 가구 수 증가 여부다. 삼성물산은 기존 건물의 구조체를 활용해 주거 성능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는 반면, 포스코이앤씨는 수평·수직증축을 통해 가구 수를 늘리는 사업을 추진한다.

삼성물산이 수주한 반포푸르지오는 2000년 준공된 3개 동, 237가구 규모다. 이번 사업에는 삼성물산이 선보인 '넥스트 리모델링'이 처음 적용된다.

넥스트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지하·지상 구조체를 유지하면서 세대 내부와 공용공간의 마감재를 바꾸고 노후 설비를 전면 교체하는 방식이다. 건물 규모를 확대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보다는 기존 주거공간의 기능과 품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삼성물산은 반포푸르지오에 '래미안 아스펠 반포'라는 새 단지명을 제안했다. 전용면적 84㎡를 대상으로 침실 공간을 강조한 '스위트' 타입과 주방·식사 공간을 중심으로 구성한 '라운지' 타입 등 차별화된 평면도 제시했다. 슬라이딩 도어와 호텔식 욕실, 빌트인 수납시스템 등을 적용하고 커뮤니티 시설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반면 포스코이앤씨가 수주한 이수신동아4단지는 기존 주택 수를 늘리는 증축형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현재 8개 동, 912가구인 단지를 지하 6층~지상 21층, 8개 동, 1048가구 규모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다.

리모델링을 통해 늘어나는 가구는 총 136가구로, 일반분양 물량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가구 수 대비 약 14.9% 증가하는 셈이다. 주차 공간도 기존 912대에서 1370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는 단지명으로 '더샵 이수 역엘플라츠'를 제안했다. 단지에는 피트니스클럽과 도서관, 개인 독서실, 골프연습장, 식물원 카페, 키즈카페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두 사업 모두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높은 조합원 찬성률을 기록했다. 반포푸르지오는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168명 중 159명(94.6%)이 삼성물산 선정에 찬성했다. 이수신동아4단지도 총 544표 중 504표(92.6%)가 포스코이앤씨에 찬성표를 던졌다. 두 건설사 모두 단독 입찰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권을 확보했다.

이번 수주는 같은 리모델링 사업에서도 단지 여건과 사업계획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가구 수를 유지하는 방식은 기존 공간과 설비의 개선에, 증축형은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신규 분양 물량 확보에 무게를 둔다.

다만 증축에 따른 일반분양 수입이 발생한다고 해서 반드시 조합원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실제 사업성은 공사비와 사업기간, 일반분양 수입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김명석 삼성물산 주택상품마케팅본부장(부사장)은 "반포푸르지오 리모델링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조합원에게 차별화된 주거 가치를 제공하겠다"며 "이번 사업을 발판으로 새로운 도심재생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재개발 '1+1 분양' 가격 올리고 공급 취소

공사비 상승에 추가 주택 실익 감소
노량진4구역 추가 분양가 두 배 인상
북아현2구역 공급 취소 소송서 승소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노량진뉴타운 구역별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메트로신문 DB

서울 재개발사업장에서 조합원에게 아파트 두 채를 공급하는 '1+1 분양'을 둘러싼 대응이 엇갈리고 있다.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곳에서는 추가 주택 가격을 높이거나 공급을 취소하면서 갈등이 발생한 반면, 추진 초기 단계에서는 반대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 분양조건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공사비 상승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등으로 1+1 분양의 경제적 실익이 달라지는 가운데, 조합원 간 이익 배분을 둘러싼 이해관계도 복잡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노량진4구역 조합은 지난 24일까지 조합원 재분양신청을 받았다. 노량진4구역은 2022년 관리처분계획 당시 조합원분양가를 적용했던 1+1 분양의 두 번째 주택 가격을 예상 일반분양가의 60%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대의원회에서 관련 안건을 의결했으며, 최종 가격은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 추가 주택 가격은 예상 일반분양가 19억원의 60%인 11억4000만원으로 책정됐다. 기존 5억원대 초반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어서 기존 신청자 일부가 반발하고 있다.

조합은 가격 인상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도 대비하고 있다. 기존 1+1 신청자들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보류지와 예비비 확보, 비례율 조정 등을 통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반대로 변경된 분양가가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기존 신청자들의 추가 주택 포기를 허용하되, 첫 번째 주택의 평형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1+1 중 '+1' 분량의 공급 자체를 취소한 사례도 있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에서는 조합이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1+1 분양을 취소해 일부 조합원과 소송을 벌였고, 대법원에서 조합 측이 승소했다. 이후 서대문구청이 지난 4월 23일 관리처분계획인가 때 부과했던 1+1 분양 관련 조건도 지난 19일 직권취소하면서 조합은 해당 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

이는 방식이다.

현재 직접 인허가형으로 관리하는 8개 사업 가운데 3기 신도시 관련 사업은 5개다. ▲하남교산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 ▲하남교산 동남로 확장 및 개선 ▲하남교산 서하남IC 입구 교차로 부분확장 ▲인천계양 벌말로 확장 ▲부천대장 경명대로 신설 등이다.

대광위는 사업별 설계·인허가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성채리 기자

3기 신도시 도로 인허가 속도 낸다

국토부, 직접 승인 사업 5곳서 7곳 확대
지자체 인허가 절차 줄여 기간 단축

정부가 3기 신도시 교통 공백을 막기 위해 도로사업 인허가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가 직접 승인하는 도로사업을 5개에서 7개로 늘릴 방침이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점검회의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직접 인허가형' 사업의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거쳐야 하는 도로사업 등을 국토부가 직접 승인해 인허가 기간을 줄

이달 마지막 주 전국 5555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화성·부산 등 전국 8곳서 청약 접수
동탄 1808가구·해운대 1644가구 공급
춘천 남춘천 센트레빌 견본주택 개관

경기 화성과 부산 해운대구의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청약 접수가 이어진다.

25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0월 마지막 주 전국 8곳에서 5555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화성시 반송동 일원에 들어서는 '아크메르 동탄 95·99'은 오는 27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지하 7층~지상 49층, 7개 동, 전용면적 54~162㎡, 총 1808가구 규모다. 단지 앞에는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행 셔틀버스 정류장이 있다.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일원에 들어서는 '트리븐센텀 1·2단지'도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지하 6층~지상 29층, 9개 동, 전용면적 75·114㎡, 총 1644가구로 조성된다. 센텀2지구와 명장공원 인근에 위치한다.

서울 영등포구에서는 오피스텔 'GD메트로타워' 770실이 청약에 나선다. 충북 청주시에서는 '신분평 에피트 더웨이시티' 992가구의 청약 접수가 예정돼 있다.

모델하우스는 강원 춘천시 효자동 일원에 조성하는 '남춘천 센트레빌'이 문을 연다. 지하 6층~지상 39층, 전용면적 59~84㎡, 총 264가구 규모다.

경춘선·ITX-청춘이 정차하는 남춘천역과 춘천고속·시외버스터미널이 인근에 있다. /성채리 기자 cr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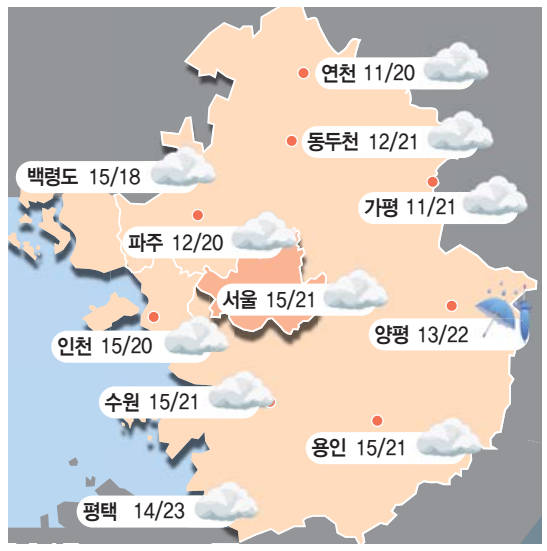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6:51 | 해짐 / 17:41

10월
26일(月)
음력 : 9월 16일

수도권 날씨
15~21℃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트럼프 "우크라전 종전 후 러·우크라 양국 모두와 사업"
▲유럽 곳곳 주말 대규모 '민생' 시위… 佛, 41만명 참여·1000명 체포 /사진 뉴시스
▲트럼프, 경합주 조지아 유세서 아우디 '42억 달러 투자' 깜짝 발표
▲오바마·트럼프 중간선거 격전지서 맞불 유세… 막바지 표심 경쟁스
▲사우디·예멘 후티, 미사일·공습 맞대응… 충돌 격화
▲브라질 대선 룰라- 보우소나루 후보, 결선투표 전야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6020호 2026년 10월 26일 월요일



식품기업
K뷰티로
새 활로 모색
L1

한미약품
비만약 판 바꾼다
근육보존 승부수
L2



교실 넘어 장애인 일터까지… “느린 걸음에 바퀴를 답니다”

새벽을 여는 사람들

특수교육 교재 출판사 ‘모듀efe’
박 연 지 공동대표



모듀efe를 함께 이끄는 박해인(왼쪽), 박연지 공동대표가 ‘차근차근 생활수학’ 등 교재를 들어 보이고 있다. /김아영 기자, 모듀efe

특수교사 출신이 만든 특수교육 교재
그림·활동 곁들여 천천히 가는 책 제작
스티커 붙이기, 오리기 등 집중력 높여

생활수학, 문장독해 등 다양한 곳에 활용
화폐 교재, 장애인 일터까지 쓰임 넓어져
통합학급 교사 위한 탁상달력도 ‘완판’

잘 팔리는 책과 필요한 책 균형 맞출 것
장애인표준사업장과 팝업북 제작 논의
해외 진출 넘어 교육 콘텐츠 기업으로

거북이는 느리다. 그런데 이 출판사의 거북이는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있다. 특수교육 교재 출판사 ‘모듀efe’는 느린 걸음을 탓하지도 재촉하지도 않는다. 대신 바퀴를 달아준다.

박연지 모듀efe 공동대표는 “거북이도 롤러스케이트를 타면 빨리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롤러스케이트가 있으면 더 빨리 가고 트램펄린이 있으면 허들도 넘을 수 있듯, 장애 학생들에게는 이 책이 그런 도구라는 뜻이다. 아이를 다그치는 대신 아이가 자기 속도로 더 멀리 가고 더 높이 뛰도록 받쳐준다는 것이다.

그는 느린 친구를 거북이로 표현하는 것이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흔한 일이라 기발한 아이디어는 아니라며 웃었다. 다만 지난 7월 열린 오티즘엑스포(자폐·발달장애 전문 박람회)에서 거북이 그림을 보고 “좋다”며 말을 건넨 이들 중에는 특수교육 현장 밖의 가족과 지인이 많았다고 한다.

모듀efe는 ‘모두를 위한 교육(Edu For Everyone)’을 내건 출판사다. 특수교사였던 박연지 대표와 박해인 대표, 두 공동대표가 2023년 함께 문을 열었다. 그해 2월 임용 교재로 출판을 시작했고 11월부터 특수교육 교재를 냈다. 박해인 대표는 특수교사 임용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9월 30일 기준 특수교육 교재는 3만4000부 넘게 팔렸다. 달력을 포함해 총 21권을 냈고, 절판 1권과 품절 중인 달력 1권을 뺀 19권이 판매 중이다.

◆“우리 반에서만 쓰이는 게 너무 아까웠다”… 교실의 활동지가 책으로

박연지 대표는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로 6년을 일했다. 특수학급은 한 반에 보통 6명 안팎인데 발달장애 학생들은 수준이 저마다 달라 교재 하나로 수업하기 어렵다. 잘하는 학생은 교재를 그대로 쓰고, 다른 학생은 글씨 쓰기를 그림이나 색칠로 바꿔줘야 했다. 그렇게 퇴근 뒤에도 활동지를 만들었고 자료는 계속 쌓였다.

박연지 대표는 “우리 반에는 글씨를 못 쓰는 아이가 한 명이지만 전국엔 굉장히 많다”며 “우리 반에서만 쓰이는 게 너무 아까웠다”고 했다. 시중 교재는 수준이 금방 올라간다는 점도 한계였다. 그는 “저희 아이들은 한 자릿수 덧셈을 한 학기 동안 배우기도 한다”며 “그림과 활동을 곁들여 그만큼 천천히 가는 책을 만들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출판은 임용 교재로 먼저 익혔다. 두 대표는 성인 대상 임용 시험 교재를 함께 쓰며 출판의 흐름을 알게 됐다. 박해인 대표에 따르면 모듀efe를 시작할 때도 아이들 책부터 내지 않고, 임용책 중 얇고 값이 싼 책으로 제작 전 과정을 먼저 연습했다. 임용책 판매 수익은 아이들 책을 만드는 밑천이 됐다.

교재 한 권에 드는 품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박연지 대표가 저자로 참여한 성교육 책에는 변기 물 내리는 방식을 알려주는 화장실 단원이 있다. 그는 레버와 버튼 종류가 다양해 지하철과 백화점 화장실을 돌며 사진을 모았다. 선긋기 워크북 활동지 123장은 저자들이 500장 가까이 만든 끝에 추린 것이다. 박연지 대표는 “교재를 만든다고 하면 아이디어만 나열하면 될 줄 알았는데 손이 가는 게 정말 많았다”고 말했다.

스티커 붙이기와 오리기 같은 조작활동이 많은 것도 교실 경험에서 나왔다. 쓰기만 이어지면 아이들의 주의 집중이 흐려지는데, 스티커 붙이기나 오리기는 아이들이 좋아하고 직접 조작하며 배우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박연지 대표는 “한글을 몰라도 화폐는 배울 수 있다”고 했다.

그가 책이 나온 뒤 가장 좋았던 장면은 강의하러 간 학교의 책장에 모듀efe 책이 자연스럽게 꽂혀 있던 모습이다. 아이들이 푼 흔적을 볼 때도 뿌듯하다.

◆유아부터 성인까지, 일반 교사에게도…특수교육 밖으로 번진 책

쓰임새는 처음 계획보다 멀리 갔다. 대표 사례는 모듀efe의 베스트셀러인 ‘차근차근 생활수학’ 시리즈다. ‘화폐 계산하기’와 ‘시계 보기’로 이뤄진 이 시리즈는 어린이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 만들었지만, 유아부터 성인까지 쓰이고 장애인이 일하는 일터에서도 수업 교재로 쓰인다. ‘화폐 계산하기’는 지폐편, 동전편, 지폐와 동전편이 있고 가장 먼저 나온 지폐편은 5000부 넘게 팔렸다. 박해인 대표는 화폐는 누구에게나 구분할 수 있게 가르쳐야 하는 개념이라 성인 대상 수업에서도 쓰이는 것 같다고 했다.



소근육 발달을 위한 ‘도형따라 색칠 오리기’ 시리즈.

달력에서는 그 폭이 한 번 더 넓어졌다. 모듀efe는 해마다 11월에 통합학급 교사를 위한 탁상달력을 낸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있는 학급을 맡은 일반 교사가 업무용으로 쓸 수 있도록 상담일지와 출결 관리 공간을 넣었고 뒤쪽에는 달마다 할 일과 알아야 할 행동 요령을 매뉴얼로 담았다.

처음 찍은 600부는 2주 만에 다 나갔다. 지난해 12월에는 한 교육청이 교사 연수에 활용하려고 2026년 달력 2000부를 주문했다. 박해인 대표는 특수교사들만 보는 출판사가 만든 책을 교육청이 일반 교사들에게까지 돌렸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했다. 특수교육 현장을 위해 만든 책이 일반 교사에게까지 전해진 셈이다.

책이 가장 많이 닿는 곳은 학교다. 학교에서는 학기 초인 3월과 9월께, 가정에서는 방학이 시작될 때 책을 많이 산다.

오는 11월에는 한글을 뗀 아이들을 위한 한 문장 독해집도 나온다. ‘라면을 먹는다’ 같은 짧은 문장에서 시작해 권수가 올라갈수록 문장이 길고 복잡해지며 5권까지 낼 계획이다. 박연지 대표는 노인 인지 활동이나 외국인 한글 학습에도 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책 밖으로 향한 다음 걸음…팝업북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잇는 구상

모든 책이 잘 팔리는 것은 아니다. 박연지 대표가 가장 힘들었던 때는 1년 차에 책이 생각만큼 팔리지 않았을 때다. 판매량이 곧 책의 성적표처럼 느껴졌고 원고에 공을 들인 작가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지 못하는 것도 마음에 걸렸다.

그때 지인에게서 좋은 책이라고 꼭 많이 팔리는 것은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 그 말을 듣고 책들을 다시 보니 안 팔리는 책은 대상이 좁았다. 화폐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쓰지만, 오리기나 기초 학습 책은 초등 저학년 위주라 판매량이 적을 수밖에 없다.

박연지 대표는 “그래도 이 세상에는 꼭 필요한 책”이라며 “적게 팔리더라도 꼭 필요한 책은 만들어야겠다”고 했다. 지금은 잘 팔리는 책과 필요한 책의 균형을 맞추려 한다.

첫 오프라인 행사였던 오티즘엑스포는 교사에게 주로 알려졌던 모듀efe가 학부모와 치료사를 직접 만난 자리였다. ‘어떤 책이 나왔으면 좋겠느냐’는 메모지 이벤트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디지털 범죄와 인공지능(AI), 스마트폰 사용을 쉽게 풀어 쓴 설명서 같은 주제가 나왔다.

다음 걸음은 책 밖으로 향한다. 오티즘엑스포에서 만난 한 장애인표준사업장과 팝업북 제작을 논의하고 있다. 이 사업장에는 팝업북을 조립하는 직무가 있다. 아직 한 차례 미팅을 했을 뿐이고 내년에 해보자고 이야기하는 단계다. 박연지 대표는 “우리 팝업북을 만들면 그분들의 일자리가 생기는 거니까, 팝업북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했다.

박해인 대표는 규모가 커지면 책을 번역해 해외 시장에 내놓는 일도 해보고 싶다고 했다. 화폐와 시계 같은 주제는 세계 어디서나 통한다는 이유에서다. 박연지 대표는 모듀efe를 출판사에서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로 키우고 싶다고 했다. 화폐, 성교육, 소근육 분야 저자들이 강의하고 학부모도 들을 수 있는 행사를 여는 구상도 있다.

새벽이 하루를 열듯, 책 한 권이 아이의 하루를 연다. 장애 학생에게 바퀴를 달아준 책은 이제 일반 교사의 책상으로, 성인이 일하는 장애인 일터로 번지고 있다. 새로운 지평은 그렇게 한 장씩 넓어진다.

/김아영기자 aykim@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펜싱 전설 구본길, 25년 선수 생활 은퇴…올림픽 金 4·아시안게임 金 /사진 뉴시스

▲‘태극마크 반납 예정’ 쇼트트랙 최민정, 월드투어 1차 대회 1000m 金

▲한국, 금 29개·종합 5위로 목표 초과 달성…탁구·사이클이 견인

▲‘첫 우승 도전’ 김보미, LPBA 5차 투어 결승서 ‘퀸’ 임정숙 상대

▲토트넘, 첼시 원정서 8년 7개월 만에 승전고…시즌 첫 연승 달성

▲노벨문학상 타면 책 팔린다…서점가 달구는 ‘특수효과’